

# 겨자씨.

KWANGSUNG MUSTARD SEED MAGAZINE

2024  
WINTER  
VOL.49

2024 Kwangsung Special

08 Interview **곽승현** 위임목사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2024

Issues & Trend

19 **4차 산업혁명과 평생학습** 조용호

22 **액티브 시니어**

- **오카리나와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 도현희
- **백세시대,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는 삶을 살자** 정찬기

# 겨자씨.

2024 WINTER  
VOL.49



## CONTENTS



표지 사진  
우쓰라(김경우)

04  
**VISION 24**  
거룩한빛광성교회 3대 목표 5대 비전

05  
**믿음·소망·사랑 | 2024 교구 사역자**

06  
**시냇가에 심은 나무 | 김정준 목사**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영적 집중력에  
사활(死活)을 걸어라!

07  
**2024 Kwangsung Special**

08  
**Interview | 곽승현 위임목사**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2024

13  
**2023 선한사마리아인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14  
**선교지 소식 | 허경도 선교사**  
선교란, 우산을 기울이는 것

16  
**The 희망나눔**  
라라 2기 부부중창단 이진태·유미경 집사

18  
**Issues & Trend**

19  
**4차 산업혁명과 평생학습 | 조용호**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포괄적 공동체 만들어야

22  
**액티브 시니어 | 도현희**  
오카리나와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

24  
**액티브 시니어 | 경찬기**  
백세시대,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는  
삶을 살자

26  
**1월의 향기 | 김만석 목사**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삶의 이야기

28  
**성지순례 | 양혜정 집사**  
8박 9일 튀르키예 & 그리스 성지순례



32  
**우리는 3040**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장미리 집사님

34  
**크리스천 코칭 | 한종진 장로**  
우리 교회 코칭사역 이야기(3)

36  
**ON 사랑**  
농어촌 교회 목회자를 향한 40년 사랑,  
AD농어촌방송선교회

38  
**성경 속 인물 초대**  
이스마엘

39  
**2024 특별기획 | 임화국 교수**  
'AGAIN, 1907!'  
평양 신앙 각성 운동 ①



43  
**더 깊은 믿음을 가지는 2024년 | 조서영**

43  
**2024년 나의 새해 소망 | 조재영**

44  
**새해 나의 7가지 기도 제목 | 이\*렬**

45  
**2024년의 소망 | 지성찬**

46  
**이웃 교회 탐방 | 푸른빛광성교회**  
경기 양주시 장흥면 푸른빛광성교회



48  
**이웃 교회 이야기 | 푸른빛광성교회**  
푸른빛광성교회의 두 가지 후원 사역 소개

50  
**학생 기자 수첩 | 태경환**  
선배 기자를 인터뷰하다

52  
**학생 기자 수첩 | 최예준**  
『겨자씨』를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가짐

54  
**학생 기자 수첩 | 최아인**  
교회의 만능 재주꾼들이 모여 있다는  
백향목선교회

56  
**꿈담 | 초등1부**  
다음세대지만 현재를 살아갈  
사랑 넘치는 초등1부

57  
**꿈담 | 초등5부**  
일상과 특별함 속에 한 뼘 자란 초등5부



58  
**꿈담 | 중등부**  
하반기 제자훈련: 더 쉼프

59  
**꿈담 | 고등부**  
루미너스 제자훈련

60  
**청년광장**

62  
**HOT ISSUE**  
청년부 제1회 크리스천 청년  
축구 월드컵: We Are One

64  
**청년부에게 보내는 편지 | 최재욱 목사**  
사랑하는 청년부에게

65  
**청년부에게 보내는 편지 | 백일주 전도사**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66  
**이용주 기자의 교회 구석구석 포토에세이**  
갈렙실버합창단



69  
**문화 & 독자 마당**

70  
**우리 교회 예술가**  
새벽 숲

71  
**캘리그래피 | 김학철**

72  
**명작 Review**  
박경리의 『토지』

74  
**여행**  
아빠와의 데이트 in Seoul



76  
**함께 배워요**  
수어

77  
**독자 마당 | 정호근**  
이런 믿음 주세요요

78  
**독자 마당 | 이춘희**  
전도하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80  
**크로스로드**  
사단법인 랍비직업학교를 준비하며

82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 거룩한빛광성교회

# 3대 목표·5대 비전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 같은 바른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다음과 같은 비전을 세웁니다.



### 3대 목표

####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평신도 지도자를 양성하고 미래 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 섬기는 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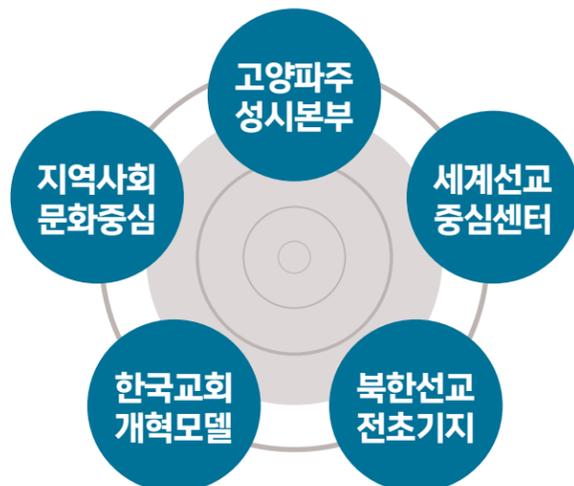
하나님을 섬기고 지역 사회를 섬기고 형제와 이웃을 섬기는 교회

#### 상식이 통하는 교회

하나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평신도들이 주체적으로 교회를 운영하는 상식이 통하는 교회

### 5대 비전

교회가 자리 잡은 지역 사회에서 좋은 문화를 보여주는  
중심이 되고 고양·파주를 전국에서 복음화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성시화한다. 나아가 한국 교회의 개혁 모델이 되고  
남한 최북단에서 북한 선교의 전초 기지로 활동하면서  
세계 선교의 중심이 된다는 비전을 담고 있다.



## 거룩한빛광성교회 2024 교구사역자



7 교구 김만석

문촌마을, 장성마을, 성저마을,  
대화마을, 가좌마을, 킨텍스, 대화동,  
주엽 2동, 송포동, 가좌동, 구산동



8 교구 김종인

덕이동 하이파크시티



9 교구 김민석

한빛마을 1·2·5·8단지



10 교구 문은배

파주시: 금촌동, 조리읍(봉일천),  
파주 외곽 전 지역  
고양시: 성석동, 설문동, 고봉동



11 교구 최재욱

한빛마을 3단지, 한울마을 2-7단지,  
가람마을, 해솔마을, 별하람마을



12 교구 김현준

한빛마을 4·6·7·9단지, 덕이동, 야당동,  
상지석동, 한울마을 1단지, 산내마을,  
초롱꽃마을, 해오름마을, 운정 3지구,  
교하지구



새가족 김한

새가족 심방 및 교육담당



1 교구 김은찬

큰마을, 탄현지구 10단지,  
에듀포레푸르지오, 임광·진흥



2 교구 이송학

탄현지구 1-9단지, 탄현지구 11-16단지,  
제니스, 단독주택



3 교구 김은률

중산마을, 산들마을,  
하늘마을, 구일산



4 교구 박정민

식사지구, 무원마을, 소만마을, 서정마을,  
샘터마을, 행신sk뷰, 햇빛마을, 화정지구,  
성사동, 삼송지구, 풍동, 은행마을,  
숲속마을, 김포, 서울, 경기 외곽, 인천



5 교구 나형빈

강촌마을, 백마마을, 양지마을,  
밤가시마을, 정발마을, 호수마을,  
백송마을, 흰돌마을, 장항 2동,  
백석 1-2동



6 교구 이일현

후곡마을, 강선마을

스마트폰은 스마트한 신이 아니다.

#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영적 집중력에 사활(死活)을 걸어라!



글 김정준 목사(『한 권으로 끝내는 교사교육』 저자)

주일, 급하게 나오다가 가방에 성경책이 빠진 것을 알았다. 시간이 빠듯하다는 핑계로 되돌아가지 않는다. 스마트폰은 손에 쥐고 있기 때문이다. 다른 주일, 이번엔 스마트폰을 빠트렸다. 시간이 빠듯하지만 즉시 되돌아간다. 예배엔 늦겠지만 폰 없이 불안한 것보다는 낫다. 심지어 다음세대 아이들의 80%는 성경은 집 어딘가에 두고 폰은 100% 들고 온다.

이쯤 되면 스마트 ‘폰’이 아니라 스마트 ‘신’이다. ‘디스카우트(Dscout)’의 2020년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은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2,600번 만진다고 한다. 한국 근무를 마치고 돌아간 유럽의 기자가 한국 사람들은 ‘3狂1無1有’의 사람들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3광, 여기에서 한국 사람들이 첫 번째로 미쳐있는 것이 ‘스마트폰’이다. 아니 스마트 ‘신’이다.

그러나 스마트폰은 스마트한 신이 아니다. 악한 신이다. 당신의 집중력을 갠아먹는다. 뇌에 도파민을 주입하여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만든다. 스마트 금식도 다짐해 보지만 그 유혹에 집중력이라 없다.

『8초 인류』는 말한다. “스마트폰은 그 물리적 존재만으로도 인지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 사용하지 않고 주변에 두기만 해도 우리의 주의력은 분산된다.” 『인스타 브레인』은 말한다. “스마트폰을 오래 볼수록 불면증, 우울증, 학력 저하, 디지털 치매 등등은 필연적 결과다.” 악한 신은 당신의 뇌를 점점 ‘팝콘 브레인’으로 만든다.

스마트 ‘신’이 무서운 것은 크리스천의 영적 집중력을 갠아먹는다는 것이다. 신앙인의 힘은 하나님과의 연결에서 나온다. 연결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 그러나 폰이 울리면 궁금해서 기도가 안 되고, 안 보이면 불안해서 기도가 안 된다. 24분 VS 3시간. 작년 한국기독교목회자협의회 조사에 따르면 기독교인들의 하루 평균 기도시간은 24분이다. 대조적으로 같은 해, 스마트폰의 하루 평균 사용시간은 3시간이다. 이러니 어떻게 영적 집중력이 생길 수 있겠나.

거짓 신을 스마트 ‘도구’로 다시 강등시키는 방법이 있다. 뇌과학자들은 ‘운동’을 추천한다. 모든 움직임은 뇌에 좋다. 신체 활동을 하면 스트레스는 낮아지고 집중력은 올라간다. 신앙도 마찬가지다. 특별히 성경은 3가지의 영적 운동을 말하고 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데살로니가 전서 5:16~18>.” 원문을 보면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이 모두 ‘동사, 명령법, 현재’다. 그러니까 지금 바로 운동하라는 명령이다.

2024년, 하나님을 향한 영적 집중력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핵심은 영적 운동이다. 예배와 삶 속에서 항상 기쁨의 운동을 하자. 스크롤 하던 손을 모아 쉬지 말고 기도 운동을 하자. 그렇게 하루하루를 감사함으로 채워가는 운동을 하자.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5:18>.” 영적 집중력의 성장, 여기에 올해 그리스도인들의 승패가 달려있다. 이제 그만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영적 집중력을 올리자.



2024 WINTER  
Kwangsung Special



##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15>

곽승현 위임목사

교육관 건축, 시니어학교 등 연령별 맞춤형 교육 환경 조성

# 복음의 지경을 넓히는 2024

글 전영의 기자



2024년 교육관 건축, 2025년 시니어학교 개교 등 세대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 조성에 박차를 가하는 곽승현 위임목사

곽승현 위임목사는 2024년 교회 표어를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로 세우고, ‘온라인에서오프라인으로’, ‘다음세대:중고등부’, ‘시니어역량 강화’를 3대 목회 비전으로 정했다.

2024년 다음세대 교육관 건축, 2025년 시니어학교 개교 등 교회내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교육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여 올해 그 초석을 놓는다는 계획이다.

### 이 시대의 로마로

곽승현 위임목사는 로마서 1장 15절 말씀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를 토대로 하여 2024년 거룩한빛광성교회 표어를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로 세웠다.

“2,000년 전 로마는 강력한 힘으로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탁월한 철학과 발전된 문명을 가졌지만 폭력과 부패, 타락과 무너진 성 윤리에 신음했습니다. 로마에 필요했던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 기술의 발달로 유례없는 문명사회를 이루고 있으나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전쟁, 공허감 등으로 불안과 허무를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영적 목마름을 해결해 줄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곽승현 위임목사는 거룩한빛광성교회 담임으로 첫발을 댄 2020년부터 지금까지 줄곧 품고 달렸던 목회 비전의 최고 지향점은 ‘복음 전파’라며, 한 해 한 해 교회 사역의 꽃대가 되었던 그간의 표어를 상기했다. 2020년 새로운 광성 2기를 다지며 ‘거룩한 빛 다시 비추소서’,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신앙이 성장하기를 소망하며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라’, 2022년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 장기화 속에

서 하나님 이끄실 새날을 기대하며 ‘성령이여, 새날을 열어 주소서’, 2023년 코로나 종식 후 한 뼘 더 성장하길 바라며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 따라 수리아,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아가야를 넘어 로마로 향했던 바울처럼 거룩한빛광성교회도 이 시대의 로마를 향해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기쁘게 수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4년의 표어를 ‘복음의 지경을 넓히소서!’로 세웠다.

### #1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지난 4년 세상은 급변했다. 웹 2.0 시대를 훌쩍 넘어 웹 3.0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과 더불어 온라인 예배가 예배의 한 형태로 자리 잡았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개인 맞춤형 신앙생활을 영위하는 ‘OTT 크리스천’이 예배의 한 트렌드가 되고 있다. 시간과 장소의 구애 없이 다양한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해 예배, 성경 공부, QT 등 신앙생활 전반을 온라인에서 하는 OTT 크리스천은 점점 증가 추세다.

“온라인 예배, OTT 크리스천 모두 신앙의 한 형태라고 생각합니다. 우



☞ 시니어로 구성된 거룩한빛광성교회 파크골프선교팀. 광승현 위임목사는 시니어학교 개교, 시니어 전문 교역자 배치 등 교회 내 시니어 사역을 점차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리 교회도 온라인 성도를 위한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관계적 존재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이 주일이면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차도 마시고, 삶도 나누는 그런 온기가 있는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신앙은 예배·양육·교제·봉사·선교 활동 등 여러 요소가 어우러지고 공동체 속에서 뿌리내려야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또한 온라인 예배 인원이 매주 1,200여 명으로 집계되고 있다. 광승현 위임목사는 돌아오는 3월로 계획된 ‘전 성도 출석 주일’을 계기로 온라인 성도들의 오프라인 전환을 독려할 예정이며, 이 중 50% 정도가 현장 예배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다. 출장, 병석, 여행 등으로 교회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것을 권면한다. 단순히 편의성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다면 여러 여건상 ‘예배의 본질’을 놓치기 십상이고, ‘드림’이 아닌 ‘시창’이 될 수 있다며 온라인에 국한된 예배를 거듭 우려한다.

### #2 다음세대: 중고등부

초등학생 때는 교회를 잘 다니다가 중고생이 되면 교회를 찾는 횟수가

점점 뜸해지고, 대학생이 되면 아예 교회를 떠나는 다음세대가 적지 않다. 이유는 다양하다. 돌아서는 다음세대의 발걸음을 붙잡지 못하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 올해 광승현 위임목사는 다음세대 중에서도 특히 ‘중고등부’ 사역을 강화한다.

가장 큰 변화는 ‘전담 교역자 투입’이다.

“그동안 중고등부 사역은 교육 전도사가 주로 맡았어요.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크죠. 우리 교회는 그동안 사회 선교를 비중 있게 해 온 반면 교회 안의 사역에 대해서는 인적, 물적 지원이 소극적이었어요. 교육 전도사는 토요일과 주일에만 교회 사역을 하죠. 그러니 인생의 격변기를 지나고 있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살피고 양육하는 데는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죠.”

올해부터 고등부 전임을 맡은 방성빈 전도사는 “아이들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 스스로 예배드리는 것을 원하게 되는” 그런 고등부를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다음세대에게도 한 가지 기쁜 소식이 있다. 오랜 염원이었던 다음세대 전용 공간이 올해 생긴다.

“우리 교회는 다음세대를 위한 환경이 매우 열악합니다. 거듭된 보수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빗물이 새는 예배실이 있고, 예배실 또한 본관 지하 1층, 비전센터, 드림학교 등 곳곳에 뿔뿔이 흩어져 있습니다. ‘다음세대 비전센터’ 건축이 무산된 후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다음세대 교육 환경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이루어졌고, 환경 개선을 더는 미뤄서는 안 된다고 판단해 교육관 건축을 결정했습니다. 종전에 계획했던 다음세대 비전센터 규모보다 많이 축소되었지만 우리 학생들을 위한 교육관을 건립하게 되어 참 기쁩니다.”

### #3 시니어 역량 강화

2025년 한국은 인구의 20% 이상이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다는 전망이다. 교회 또한 고령 교인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요청되는 가운데 광승현 위임목사는 올 3대 목회 비전 중 하나를 ‘시니어 역량 강화’로 정하고, 2024년을 시니어 사역의 초석을 다지는 해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지난해 ‘아보트학교’, ‘파크골프선교팀’ 등의 사역이 닦을 올린 데 이어 가정사역위원회에서는 올해도 ‘시니어 세미나’, ‘시어머니장모님 학교’, ‘자서전 쓰기’ 등 시니어 프로그램을 풍성하게 준비 중이다.

2025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시니어 전용 공간이 탄생한다. 광승현 위임목사는 교육관이 완공되어 다음세대가 옮겨가면, 다음세대가 사용하던 지저스아트홀과 지하 1층의 여러 공간을 ‘시니어학교’로 리모델링 해 교회와 인근 지역의 시니어들이 인생 2막을 풍성하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돕는 인생학교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 신앙뿐만 아니라 경제, 법률, 행정, 여가, 건강 등 다양한 강좌를 개설해 시니어들이 변화하는 세상에서 능동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식을 얻고, 교회가 그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시니어학교에 거는 기대를 말했다.

교육관, 시니어학교 등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환경이 교회 내 점차적으로 조성되면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문이 넓어지고 있다.



» 백향목선교회 작업실에서 나무 도마를 만들고 기뻐하는 광승현 위임목사.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내고 거친 표면을 다듬어 ‘쓰임’의 용도를 지니게 되는 도마처럼 신앙 또한 날마다 말씀으로 자신을 연마해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가 된다고 말한다

## 인터뷰 속 인터뷰



이곳은 성도들이 교회, 신앙, 성경 지식, 교회 정책 등 궁금한 것을 박승현 위임목사에게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공간입니다. 궁금한 것은 『겨자씨』를 통해 질문해 주세요. 채택된 질문은 답변과 함께 다음 호 『겨자씨』에 게재하겠습니다. 다음은 40대 남자 성도의 질문입니다.

### 질문

**30, 40대 성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이 자녀 문제입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가 다른 교회 교회학교에 비해 중점적으로 구별되는 운영철학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우리 교회 3대 목표 중 두 번째가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광성드림학교를 세운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학교에서는 광성드림학교와 연계하여 다양한 커리큘럼을 진행하며 미래사회와 교회의 인재를 양성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회학교에는 ‘어와나(Awana)’와 ‘어린이영어예배’ 사역이 아주 잘 갖춰져 있습니다. 어와나는 세계 아동 청소년 선교단체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된 일꾼’을 키워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리 교회 어와나팀 또한 그 커리큘럼에 맞춰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매년 ‘어와나올림픽’에 출전하여 성경 암송, 성경 퀴즈 등 많은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도 하고, 예수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또 예배의 모든 과정을 영어로 진행하는 어린이 영어예배를 통해 영어 문화권의 예배를 경험하고 영어 실력을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교회학교 운영철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성경적 가치관 속에서 미래사회 인재 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영어예배부 Lock in Camp(거울성경학교)



2022년 어와나 올림픽 스팅스 경기



# 플로잉데이 Flowing Day 주님의 사랑 나를 통해 흐르리



국제개발협력 NGO  
지파운데이션 지원

## 2023 선한사마리아인 추수감사절 프로젝트

추수감사절 헌금 전액을  
우리 주변의 어려운 성도와 이웃에게 흘러보내는 사역

### • 방법

헌금자가 자신의 추수감사절 헌금을 흘러보낼 대상자를 지정

### • 이렇게 지출했어요

항목별 지원내용		지원금액
범위 지정	한부모, 다문화, 노인, 노숙인	해피월드 통해 지원 15,387,000원
	장애인	농인성경골든벨 지원 5,000,000원
	청년	청년창업 재정 2,184,124원
교인 지정 대상자		15,490,000원
작은교회, 선교사, 외부 지정 대상자		20,380,000원
교구, 부서 추천 가정(환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		47,000,000원
크로스로드: 비빌언덕(보호 종료 청년 자립 사역)		10,500,000원
보육원 사역 지원(지파운데이션)		4,000,000원
자살 예방 사역 지원(라이프호프)		1,000,000원
탈북 청년 사역 지원(나눔과이음)		2,000,000원
미자립 사역자 지원(예배사역자연합)		2,000,000원
<b>합계</b>		<b>124,941,124원</b>



## 부르시는 곳으로 간다 선교란, 우산을 기우는 것

글 허정도 선교사(우간다)

안녕하세요, 거룩한빛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간다의 허정도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작년 2022년 3월 31일 우간다에 첫발을 내딛고, 수도 캄팔라에서 약 1시간 떨어진 곳에 있는 브웨렝가(Bwerenga) 지역의 ANPS(All Nations Primary School, 모든 민족초등학교)를 섬기고 있습니다. 올 1월 정식으로 학교 Director(총 책임자)의 역할을 부여받고 학교의 전반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담당자가 없어서 보이는 시설과 보이지 않는 영적인 부분 모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인간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영적 변화를 위한 환경조성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올 1월 교회의 리모델링을 시작하였고 그와 동시에 성경 300권을 기증받고 2월 신학기부터 매일 아침 7시 30분부터 8시까지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올 한해 창세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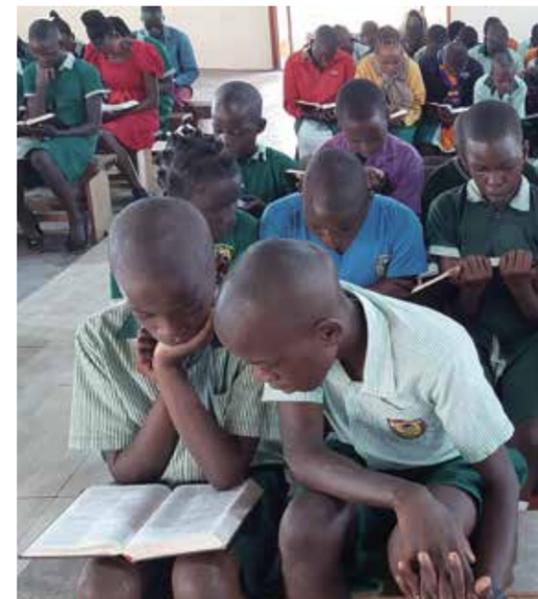


☞ 성경 전달식  
Good News Bible 300권

출애굽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로마서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금요일은 모든 학생과 교직원이 참여하는 정기 예배로 모이고, 수요일마다 저녁 기도회와 매 학기 마지막 주 3일간 성경학교도 진행했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이 진행되면서 어둠의 세력이 준동해서 더 치열한 영적 싸움을 치르기도 했지만, 말씀 읽기, 예배, 기도를 통해서 학교의 영적인 흐름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풍성히 자라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학교 시설의 리모델링(예배당, 교실)과 정수기 설치 등의 사업을 했습니다. 예배당은 이제 안과 밖의 수리가 다 되었고 화단에 꽃 심기와 바깥 인도 작업만 진행하면 됩니다. 예배를 위한 음향 및 영상 시설도 준비하여 열정적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1:1 매칭 사업을 통해서 2023년 3학기부터 25명의 학생에게 학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학교를 나오지 못했던 아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와 아내를 볼 때마다 웃으면서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지를 말해주는 그 아이들 덕분에 힘든 선교지의 시간을 잊고 지내고 있습니다.

☞ 아침 성경 읽기



☞ 2023년 1월 리모델링 시작 전 교회 내부



☞ 리모델링한 교회 내부

목회를 시작하면서 '부르는 곳으로 간다.'는 목회원칙을 세웠고 순종하다 보니 우간다까지 왔습니다. 와 보니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신 일들을 매번 경험합니다. 작년 한 해 이루어진 모든 일은 우리가 한 것이 하나도 없고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것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전달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자고 아내와 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만큼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만큼 우리는 일하기로 다짐합니다. 저는 선교란 '우산을 기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우산을, 세상을 향해 기울일 때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복음은 펼쳐질 것이라 믿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과 아내와 남편에게 사랑의 우산을 펼쳐주세요. 교회와 세상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사랑의 우산을 기울여 보세요. 그곳에 하나님 사랑이 심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꿈꾸고 협력하는 많은 성도님과 거룩한빛광성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달란트는 달라도  
함께함에 기쁨 두 배

## 라라 2기 부부중창단 이진태·유미경 집사

글 전영숙 기자



☞ 홍보미디어위원회에서도 함께 방송 제작에 힘쓰는 이진태, 유미경 집사



☞ 라라부부중창단 2기로 소리 모아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어 좋다고

같은 달란트를 갖고 같은 곳에서 봉사하는 부부가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순 없는 일. 극히 드물기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런데 서로 다른 달란트를 가졌지만 서로를 받쳐주며 함께 섬기는 부부가 있다. 라라 2기 부부중창단의 이진태, 유미경 집사가 그 주인공. “저요? 노래 별로 못해요. 그냥 멤버들이 좋아서 함께하고 있는 거죠. 중창단 담당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우린 실력보다 비주열이라고.’ 라라 1기가 정통파인 반면 2기는 캐주얼해요. 분위기도 밝고 편안해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내어놓고 서로 기도하고 아이들도 한데 어우러질 수 있어서 좋아요.” 부부가 둘 다 노래를 잘하니 얼마나 좋으냐는 기자의 말에 유 집사가 급하게 손사래를 쳤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라라중창단을 먼저 권한 건 유 집사였다. 자신은 목장이나 여전도회를 통해 교회 안에서 여러 활동을 하는 반면, 남편은 쉽사리 자리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남편은 처음엔 시큰둥했다. 이미 먼저 다니던 교회에서 성가대 지휘와 찬양단 리더로 활동했던 터라 예배에만 집중하고 싶다고 했다. 게다가 2010년 처음 교회에 왔을 때 봉사 신청서를 냈는데 누락됐는지 연락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큰 교회라 인원이 많아 필요 없나 싶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처음엔 아내에게 끌려갔다는 표현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멤버들



☞ 아빠의 끼를 받아 중등부 루다워십과 어린이 합창단으로 활동 중인 예쁜 두 딸



☞ 바쁜 일상 속에서 유미경 집사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되고 있는 백향목선교회 활동

이 너무 좋은 거예요. 부부 사이 흥도 볼 정도로 허물어 없고, 좋은 일은 축하하고 슬픈 일은 위로하며 서로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좋은 건 아이들과 가족 모두 함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연습 때 옆에서 장난치고 떠드는 것 같아도 집에 가서 찬양을 따라하고 가사 틀린 것도 잡아내는 걸 보면 허투루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같이 봉사하시던 분들과 지금까지 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부부가 모임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건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2018년부터 중창단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 부부는 지난해부터는 홍보미디어위원회에서도 손발을 맞춰 활동하고 있다. 영상을 편집하는 아내 옆에서 이 집사도 자막을 넣어가며 힘을 보태고 있는 것. 유 집사는 방송 연출이 직업인이라 봉사까지 연출 일을 하고 싶지 않았으나 2021년 다니엘기도회 때 자꾸 달란트를 도구로 써 달라는 기도가 나왔단다. 더욱이 원텐텐 가정예배 영상을 제작하러 온 분들이 촬영을 마치고 돌아가는데 그 뒤에 대고 아이들이 ‘우리 엄마도 PD예요.’라고 외쳐서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면서 카메라 봉사를

시작했고 영상팀장까지 맡게 된 것. 이뿐 아니라 이곳저곳 홍보영상 제작 부탁이 들어오면 그것까지 하느라 몸이 두 개라도 모자랄 판. 나서서 하는 성격은 아니나 거절을 못하는 성격이라 그렇다는 유 집사의 말에 이 집사의 눈빛이 갑자기 아련해졌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아내를 자주 보게 되니까 간사님이시냐고 물을 정도예요. 봉사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조절했으면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물론 유 집사는 그 마음을 안다. 그래서 늘 고마운 마음뿐이다. 연애 때부터 늘 한결같은 이 집사 모습에 ‘그런데 나는 어떤가?’ 하고 스스로 돌아보게 된다고. 가족들이 자신을 좋아해 줘서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에 너무 감사하지만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 미안할 뿐이란다. 친한 교회 오빠였던 이 집사는 방송 때문에 늦게 퇴근하는 유 집사를 언제나 데리러 와 줬다. 이토록 세심하게 잘 챙겨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은 생각에 서서히 스며들었다고. 친오빠가 이 집사도 분명히 결혼 후에는 변할 거라고 했는데 연애 4년, 결혼 15년이 지나도록 교회 오빠였던 그 모습 그대로란다. 바쁜 아내를 위해 집안일은 스스로 알아서 더 많이 하는 배려 깊은 교회 오빠. 부부는 살아가면서 닳아간다고 했는데 겉으로 보기엔 강함과 약함으로 달라 보이는 이들 부부는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웃는 모습이 너무도 닳아 있었다. 서로의 달란트가 달라도 그 달란트가 더 빛을 낼 수 있도록 옆에서 발맞춰 나가는, ‘같은 자리에서 함께 봉사하는 게 너무 좋다.’는 이들 부부의 고백이 내 입술의 고백이 되길 고대해 본다.



☞ 원텐텐 가정예배를 드린 후 가족과 함께

# Issues & Trend



## 4차 산업혁명과 평생학습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포괄적 공동체 만들어야

글 조용호

## 액티브 시니어

오카리나와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

글 도현희

백세시대,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는 삶을 살자

글 정찬기



## 4차 산업혁명과 평생학습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는 포괄적 공동체 만들어야



글 조용호 (글로벌미래교육원 원장)



인류 역사상 기술 혁신이 가져온 변화의 파도는 언제나 우리의 생활 방식과 사고를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중에서도 4차 산업혁명은 그 어떤 혁명보다도 광범위하고 심오한 변화를 우리 사회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보 기술의 괄목할 만한 발달은 기존의 산업 구조와 경제 시스템, 나아가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유형의 지식과 기술, 그리고 이를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평생학습은 더 이상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단순한 방안이 아니라,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고 성공적으로 기능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한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학습을 일생 동안 지속해야 하는, 끊임없는 과정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특히, 이러한 인식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물결을 맞이하는 현 시점에서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그렇기에 이 기고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어떻게 습득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평생학습이 그 중심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평생학습의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이를 통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어떻게 더 나은 삶의 질을 추구하고 자아실현을 이루어갈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려 합니다.

본문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을 살펴보고, 평생학습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들을 구체적으로 다루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시대에 교회가 평생학습을 통해 어떻게 공동체의 발전과 개인의 영성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심도 깊게 탐색해 보려고 합니다.

### 1. 4차 산업혁명이 요구하는 새로운 학습 방식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획일화된 지식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의 창의성과 혁신적 사고를 요구합니다. 디지털 기술의 발달은 학습 환경을 개인 맞춤형으로 변화시켰고, 이는 개인의 학습 경로와 속도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융합되는 특성상, 학습자는 단일 분야의 전문 지식 뿐만 아니라 타 분야와의 연계성을 이해하고 통합적 사고를 발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평생학습은 교육의 범위를 확장하는 동시에 학습 방법과 접근성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self-directed learning)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가상 클래스, 대화형 학습 프로그램, 실시간 데이터 분석을 통한 맞춤형 학습 콘텐츠 제공 등은 이제 평생학습의 새로운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 2. 평생학습의 중요성과 그 혜택

평생학습은 개인에게 지속적인 자기개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직업 시장의 불확실성과 기술 진보는 개인이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고 기존의 지식을 업데이트하는 데에 지속적으로 투자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는 개인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의 적응력과 유연성을 증진시킵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보면, 평생학습은 인적 자원의 질적 수준을 높여 경제 발전에 기여합니다. 지식 기반 경제에서는 교육과 학습이 경제 성장의 주요 동력이며, 이는 사회 구성원의 학습 능력과 직접 연결

됩니다. 평생학습은 사회적 포용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지식과 기술을 공유함으로써 사회적 결속을 증진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 3. 교육의 혁신: 기술과 평생학습의 결합

디지털 기술과 인터넷의 발전은 교육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켰습니다. 가상 강의실, 온라인 공개 강좌(MOOC), 원격 교육, 그리고 각종 학습관리시스템(LMS)은 지리적인 장벽을 허물었고, 시간적 제약을 줄였으며, 학습 비용을 절감했습니다. 이는 학습자에게 언제 어디서나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며, 평생학습을 실천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습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등의 첨단 기술은 학습자 개인의 필요와 선호에 맞춘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학습자가 자신의 학습 진도를 추적하고, 학습 효과를 분석하며, 필요에 따라 학습 계획을 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4. 교회와 평생학습의 연계

교회는 전통적으로 지역 사회의 교육과 학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교회는 신앙 교육뿐만 아니라,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을 포괄하는 평생학습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세미나, 워크숍, 스터디 그룹, 온라인 교육 플랫폼 등을 통해 평생학습을 촉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평생학습의 촉매제로 기능할 때, 개인의 영적 성장은 물론 지적 성장도 도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의 전인적 발달을 추구하고, 지역 사회 내에서 평생학습 문화를 구축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러한 활동은 교회가 사회적 변화의 중심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지역 사회의 변화와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4차 산업혁명의 도래는 우리에게 변화와 적응의 중요성을 일깨웁니다. 평생학습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로, 개인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경제적 번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적 중심지로서, 신앙과 지식을 결합하여 커뮤니티에 깊이 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술 발전을 수용하고 평생학습을 촉진함으로써, 모든 세대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포괄적 공동체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평생학습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새로운 유형의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 4차 산업혁명



# 액티브 시니어 오카리나와 함께하는 행복한 여정

글 도현희(오카리나 강사)

음악은 어려서부터 제 삶의 전부였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피아노를 시작하여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의 예배와 찬양 반주로 봉사하면서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고관절과 손가락 관절의 통증으로 꼼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평생 하리라 생각했던 교회의 반주를 할 수 없게 된 상황은 저를 이루 말할 수 없는 낙심과 무기력에 빠지게 하였고 나날을 우울한 시간으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가까이 지내던 지인께서 작은 오카리나를 제 손에 쥐여 주셨습니다. 초등학교생이나 부는 악기라고 생각하여 관심이 없었으나 그분의 성의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한 음, 한 음 불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의 호흡과 흠으로 만들어진 악기가 만나서 빛어내는 자연의 순수한 소리에 빠져들게 되었고 그 소리는 저에게 위로가 되어 희망을 품게 했습니다. 흠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셔서 사람이 생령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저의 메마른 심령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다시 살아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며 오카리나를 정식으로 배우려고 근처의 문화센터에 나가기 시작했고 열심히 배우고 익히는 가운데 앙상블팀에도 합류하여 요양원과 병원 등에서 봉사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오카리나의 소박하고 고운 울림을 들려드릴 때 그분들이 미소와 활력을 되찾는 모습을 보면서 제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명지병원 로비음악회에서 연주를 할 때였습니다. 여러 개의 링거를 주렁주렁 단 채 고개를 떨구고 힘없이 앉아 계셨던 분이 오카리나 연주를 들으시면서 얼굴에 미소를 띠시고 기력을 회복하시며 급기야는 휠체어에서 일어나셔서 즐거운 얼굴로 춤을 추시던 모습은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셔서 저의 경우처럼 다른 분들이 가장 낙망하여 어둠 속에 있을 때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찬양을 할 수 있도록 그분들에게 반려악기로써의 오카리나를 소개하고 가르쳐드리는 일을 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지병원 로비 음악회

결혼 후 25년 넘게 전업주부였던 제가 지금은 주민자치센터와 제 개인 레슨실에서 오카리나를 연구하며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과 함께 자원봉사단체를 만들어 주간보호센터와 요양원에서 연주하고 있습니다. 고양버스커즈인 앙상블팀으로 고양꽃박람회와 고양호수예술축제 등 고양시와 파주시의 다양한 행사에서 공연하고 있으며 초등학교나 장애인 학교 등 부르시는 곳이 있으면 어디든 달려가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음악회에서 해맑은 얼굴로 오카리나 연주에 맞추어 목청껏 노래 부르는 어린이들, 불확실한 미래로 좌절하고 있었는데 오카리나를 배우고 힘을 얻어 주간보호센터 봉사연주에 참여하여 어르신들과 함께 트위스트를 추며 사랑을 듬뿍 받던 청년, 일곱 번의 암수술과 투병생활을 오카리나를 배우며 이겨내신 분, 수업시간에 찬양곡을 함께 연주하며 주님이 주신 감동으로 눈가를 훔치던 저와 제자들, 2년여 동안의 코로나 기간에 온라인으로 수업 받다가 가족과 지인들 앞에서 연주회를 마친 후 답답했던 시기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었음을 고백하며 진심으로 감사해하던 분들, 요양원 침대에 누워계시다가 왕년에 즐겼던 오카리나의 노랫가락소리에 벌떡 일어나 앉으셔서 함박웃음을 지으며 흥겹게 박수치셨던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남녀노소 모든 이들에게 기쁨과 활력을 주는 오카리나와의 삶은 참으로 행복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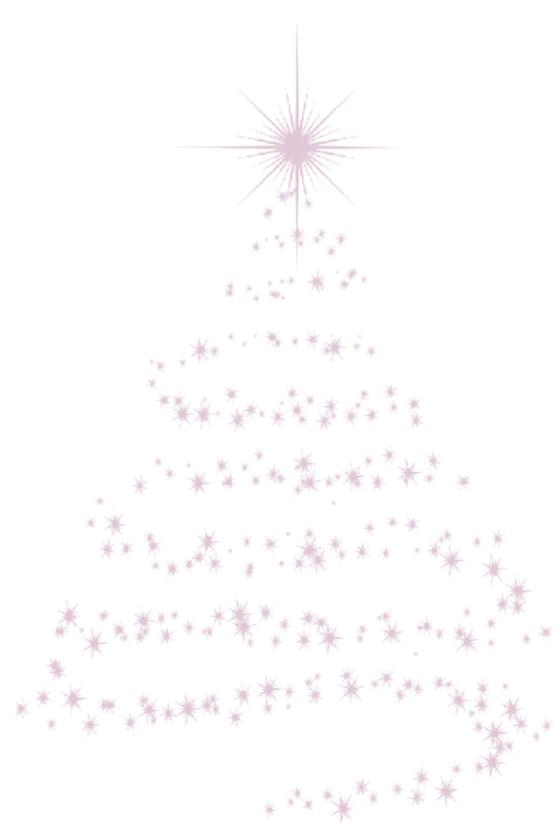
흠으로 만든 악기에 날숨을 불어넣으며 아름다운 선율을 만들어 나가는 가운데 위안과 치유를 얻고, 여럿이 함께 고운 소리를 만들기 위해서 타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조화로운 화음을 이루어 나가는 여정은 참으로 귀하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를 찬양하게 합니다. 아골 골짜기에서 건져내시어 소망을 품게 하시고 이웃들과 사랑을 나누게 하신 은혜로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오카리나 수업 중



오카리나 수업 중



스 제자들과 주간보호센터 봉사공연



스 초등학교 찾아가는 음악회

# 액티브 시니어 백세시대, 늙어가지 말고 익어가는 삶을 살자

글 정찬기(50+행복연구소 소장)



## 백세시대 나의 인생 단어는, 튼튼 건강과 즐겁게 일, 영혼에 흥을 돋우는 문화 여가 취미 생활을 즐기자

우리는 종종 인생을 계절에 비유하곤 한다. 탄생에서 죽음까지 이르는 여정이 자연의 순환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정신의학자 레빈슨(Levinson) 역시 사계절에 빗대 '인생주기론'을 주장했다. 봄은 인격체 형성기인 아동 청소년기, 여름은 불굴의 투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땀 흘리는 성인기, 가을은 풍요와 고독이 병행하는 강물 같은 중년기, 마지막으로 긴 여정을 마무리하는 인생의 마리톤을 정리하는 노년기인 겨울까지. 하지만 삶은 우리가 예측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이상 기후로 늦여름과 가을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것처럼 중년기가 길어지는 것이다. 이른 은퇴 후 낀 세대, 신중년, 액티브 시니어 등으로 불리며, 길어지는 중장년기에 방황하는 이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우리는 또 다른 인생학자 윌리엄 새들러가 말한 대로 가을 앞에 와 있는 중년기, 즉 제3 연령기로서 성장을 위한 삶의 여정을 대비해야 한다. 노년기를 대비하기보다는 제2의 성장기를 맞이해 추수를



⊕ 광주 KBS 1TV '백세시대' 패널 출연. '인생 2막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 '빛고을50+센터' 운영 회의 모습

위한 즐거운 고민에 빠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삶을 먼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인생 1막 직업군인

필자는 인생 1막의 삶을 직업군인으로 보냈다. 인생 1막 성인기를 병사로 의무복무를 마치고 병장으로 전역 후 다시금 군인 장교의 길을 걸어간, 다소 색다른 직업군인 30여 년의 외길 인생 끝에 전역하였다.

군대는 누구에게나 평등하지만 철저한 계급사회이기에 진급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다. 20대 후반에 육군소위 계급을 달았고 30대 중반 늦깎이 결혼으로 가정을 꾸린 나는 매일 새벽 별과 초승달을 벗 삼아 하루 6시간 이상 자본 적이 없는 늘 버린 칼날 같은 삶을 살아야 했다. 꿈꾸던 계급까지 진출하지 못하고 군문을 떠나야 했으나 주저앉아 실의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다. 내가 가진 장점과 부족한 분야를 꼼꼼히 살펴보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우는 강행군을 시작했다.

## 인생 2막 준비

이에 전역 전 전기학, 미디어문예창작학을 배우고, 전역 후 경영과 유통학, 사회복지학, 군사전문학을 단기간에 이수하고 졸업했다.



⊕ '인생 6070대학 포럼'에 초청 강사로 초대를 받아 '노후 준비 필요성'에 대해 강의

또 행정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유통실무사, 전기공사, 소방·가스 등 안전 분야 관리자, 빌딩관리사, 경호지도사, 상담사 등 20여 개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했다. 생계형 일자리 등 적재적소에 내가 가진 기술과 경력을 활용하고 있다.

## 지금도 나는 성장한다

좌절하지 않는 한, 길은 있다. 시설관리 전문회사에서 소장직을 시작으로 직업군인 자녀 기숙사 사감, 관공서 문화시설 총무부장, 대학교 취업지원팀 직원, 전기공사 업체 공무부장 등의 다양한 경험과 경력을 쌓았다. 그렇기에 마침내 백세시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한 장년층 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생 2막을 보람되고 희망차게 보내도록 지원하는 광주광역시 장년층 생애 재설계 지원기관 초대 센터장직을 맡게 되었다. 인생 2막 초기부터 6번의 급여형 일자리를 거친 덕분에 인생 1막에서처럼 성취감과 보람이란 축복을 누리며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었다. 이렇듯 인생 2막에서도 쉼 없이 나의 기량을 펼치며 원기 왕성하게 제2의 성장기적 삶을 즐기며 생활할 수 있는 자양분은 다양한 학습으로 전문성을 길렀고, 더불어 다양한 자격증 취득에 집중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삶을 살자. 늘 뻗은 사람이 아니라 새롭고 신선한 사람이 되자.



⊕ 코로나 시기 마을 방역 봉사

#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삶의 이야기

글 김만석 목사



원텐텐 힙내요 우리가정~ 총알 택배

거룩한빛광성교회에 부임한 지 벌써 4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 옆 가을 길을 다섯 번 걸었습니다. 위임목사님께서 거룩한빛광성교회의 아름다운 추억이라고 말씀하셨던 제설 작업도 다섯 번째 하고 있습니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초등학교 5학년이었던 큰딸 지민이는 중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고, 유치원생이었던 지성이는 이제 5학년이 됩니다. 4년 6개월이라는 시간이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4교구와 7교구를 만났고, 세계선교위원회, 중보기도위원회, 차량위원회, 봉사경조위원회, 자치회를 만났습니다. 21시간 30분 비행기 타고 우간다도 다녀왔고, 터키-그리스 성지순례도 은혜 가운데 다녀왔습니다. 코로나라는 작은 바이러스가 3년의 시간을 더 빠르게 지나가

사랑하는 가족들 (김지성, 김지에, 김만석, 김지민)



게 하였습니다.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 어색하고 막막하였지만 위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교역자들 모두의 수고와 헌신이 코로나를 넉넉히 이기게 하였습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는 가을과 겨울이 참 좋습니다. 교회 주변의 나무들이 선사하는 붉은 빛의 나뭇잎들이 참 좋습니다. 교역자실에서 바라보는 아파트 사이로 지는 태양 또한 너무 아름답습니다. 가을바람, 가을 하늘, 가을빛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또한 한겨울 아무도 견지 않은 눈 내린 교회와 그 주변은 너무나 평안하고 좋습니다. 그 뒤에 제설 작업은 좀 힘들지만 좋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사실입니다. 누군가 어묵 한 꼬치라도 끓여다 주시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전도서 3:11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 수 없으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사람마다 좋아하는 일이 있고, 즐겨 하는 취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내가 좋아하는 일만 할 수도 없고, 더욱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바라는 일이 다 이루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서 기자는 확신에 찬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나의 인생을, 나의 가정을, 나의 사업장을, 나의 교회를 아름답게 하셨다고 고백하는 감사가 넘쳐나야 합니다.

케이티데이비스의 『그래도소망』이라는 책에 나오는, 13명의 우간다 어린이를 입양하고 400여명의 엄마가 된 그녀의 고백이 기억에 남습니다. **“인생이 내 예상을 벗어나고 원하던 결과가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그분의 공간을 조금씩 더 넓히셨다.”**

때론 속상하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며 기도하던 저도 그렇게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과와 상관없이 내 안에 당신의 공간을 조금씩 더 넓히고 계시는구나.’** 아멘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찬양의 가사를 함께 나눕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체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감사와 순종으로 그 길 따라갈 때,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날 부르신 그 주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을 바라보며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믿으며 오늘도 힘차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2024년 힘내세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하나님을 함께 기대해요^^



교역자들과 함께 제설 작업



7교구 1지구 리더십과 함께



정성진 · 곽승현 목사님과 함께하는

2023년 9월 18일~9월 26일

# 8박 9일 튀르키예 & 그리스 성지순례

글 & 사진 양혜정 집사

## 출발

2,000여 년 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간절한 마음을 본받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에 성지순례를 신청했다. 매 주일 목사님의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친숙해진 바울의 전도 여행지를 둘러보는 튀르키예와 그리스 성지순례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컸다. 38명의 일행은 한 달여간 성경을 읽으며 준비 기간을 가졌고 설레는 마음을 안고 장장 11시간의 비행 끝에 튀르키예 이스탄불에 도착했다.

## 1. 보스포루스 해협

이스탄불은 튀르키예의 최대 도시로, 흑해에서 마르마라해로 향하는 보스포루스 해협의 양쪽에 걸쳐 있다. 이스탄불은 유럽과 아시아가 마주하는 곳에 위치하여 두 대륙의 역사와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다. 두 대륙을 연결하는 1915 차낙칼레 다리는 SK건설이 건설했는데, 마치 미국의金門교를 연상시키는 길이 4.6km의 세계 최대 길이의 현수교이다. 그 밑을 유람선을 타고 지나가면서 그 웅장함에 압도되었고 배 위에서의 두 분 목사님의 찬양을 잊을 수가 없다.



## 2. 아야 소피아(Hagia Sophia)

성 소피아 성당은 현존하는 최고의 비잔틴 건축물로, '소피아'는 '거룩한 지혜'라는 뜻이며 예수님을 상징한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함락된 이후 이슬람 사원 모스크로 사용되다가 1935년 튀르키예가 박물관으로 변경하였으나 2020년 다시 모스크로 이용되고 있다. 오스만 제국 점령으로 벽화가 많이 훼손되었지만 성당 내부에 들어가면 아름답고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가 남아 있다.



## 3. 괴레메의 동굴교회

카파도기아(Cappadocia)는 '아름다운 말(馬)이 사는 곳'이라는 뜻의 페르시아어에서 유래된 지명으로 '여기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연의 신비가 가득한 곳이었다. 주변 화산산의 화산재가 굳어져서 생긴 바위(응회암)라 비교적 쉽게 깎여나갔고 독특한 침식 지형으로 인해 문화적, 자연적으로 신비하고 진귀한 경관을 이루는 곳이다.



기독교의 박해가 끝나고 만들어진, 현재는 그 일부가 박물관으로 운영되고 있는 괴레메의 동굴교회들을 방문했다. 한 사람 정도가 간신히 드나들 수 있는 크기의 입구와 최소한의 통풍과 채광을 위한 구멍만 뚫려 있는 겉모습과는 다르게 내부는 아름다운 프레스토 벽화로 장식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교육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랍이 기독교 박해 당시 벽화의 사람 얼굴과 눈에 영혼이 들어 있다 하여 성상파괴운동을 했고, 이 운동으로 훼손된 흔적들이 마음을 아프게 했다.

## 4. 데린쿠유(깊은 우물) 지하도시

데린쿠유 지하도시는 카파도기아에 있는 황량한 평원 아래에 땅을 파서 만든, 모든 필요 시설을 갖춘 지하도시들 중 하나이다. 성인 여성도 몸을 제대로 펼 수 없어 웅크리고 다닐 정도로 매우 좁고 협소한 곳에서 오랜 시간 신앙을 지키며 살아왔을 그분들의 치열한 삶을 생각하며 모든 성도가 함께 기도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다. 일반 생활 시설 외에 교회, 학교, 공동부엌, 마구간 등이 있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했고 내부에 대형 환기구와 우물도 있었다. 지하도시 발견 당시 기독교인을 박해하려 들어갔다가 오히려 길을 잃고 아사한 로마 군사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해진다.



## 5. 라오디게아

라오디게아는 휴양지에 있는 부유한 도시로 교통, 무역, 금융의 중심지이며, 면직과 모직 산업이 발달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은 에바브라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인근 교회와 함께 바울의 서신을 회람하는 등 서로 긴밀한 영적 교류를 나누기도 했다. 라오디게아의 풍족했던 경제력으로 히에라볼리에서부터 온천수를 끌어왔는데 온천수가 라오디게아에 이르면 온도가 미지근해졌다. 이렇게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신앙으로 사도 요한에게 책망을 들은 교회로 물질적으로는 부유했으나 영적으로는 곤비한 교회였다.





### 6. 히에라볼리(파묵칼레)

‘히에라볼리’는 ‘거룩한 성읍’이란 뜻의 도시로 지진지대에 있는 온천으로 유명했고 온천수를 이용한 염색 기술과 모직물과 양탄자 산업이 발달했다. 그중 파묵칼레는 목화(파묵)의 성(칼레)이라는 의미로 새하얀 온천지대가 있는 독특한 지역이다. 지면에 칼슘이 많아 하얗게 보이는 이곳은 마치 눈밭에 있는 듯한 착각을 일으키며 이국적인 장관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의 도시가 되었다. 이곳에서 수천 년에 걸쳐 형성된 그림 같은 석회층의 풍경과 천연 족욕을 마음껏 즐기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냈다.

### 7. 에베소(셀축)

에베소는 튀르키예 서부 해안에 있는 고대도시로 라오디게아와는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그 규모가 어마어마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시 유대인들과 변론했던 유대교회당이 있었으며 소아시아 7교회 중 하나로 사도 요한의 숨결이 서린 곳이다. 원형극장(오데온), 셀수스 도서관, 아고라(시장, 광장), 에베소 대극장 등 고대도시의 유명한 유적지가 많은 곳이다.



### 8. 파르테논 신전

그리스에서의 첫날은 아테네의 최고 건축물인 파르테논 신전에서 시작되었다. 아크로폴리스산 꼭대기에 세워진 신전으로 도리스 양식의 건축의 극치를 보여주는 곳으로 올라가는 입구에서부터 그 웅장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파르테논 신전은 얼핏 보면 직선과 평면으로 세워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모두 곡선과 곡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의 착시현상까지 감안하여 어느 방향에서 바라보더라도 균일하고 곧바로 보이게 하려고 과학적인 건축법을 이용했다고 한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제1호인 이유가 너무나 분명했다.



### 9. 고린도 운하

아테네를 뒤로하고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반도를 잇는 코린트 지협에 있었던 고대 폴리스 고린도로 가는 도중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인 고린도 운하에 도착했는데 에메랄드빛의 지중해 바다의 색깔이 무척 영롱했다. 예전 로마 시대 때부터 운하를 건설하려고 했지만 1893년이 되어서야 완공된 고린도 운하는 폭이 21~24m 정도로 좁고 수심은 8m로 얕아 현재는 상업용 물류에 사용되기보다는 관광용 중소형 배들만 운행된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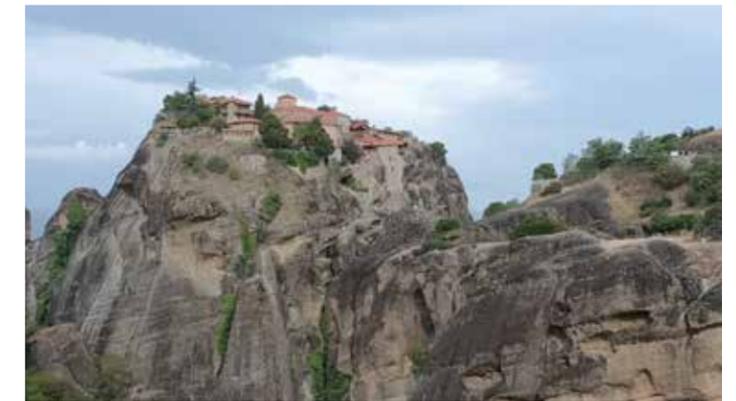


### 10. 그리스 정교회 예배당에서 주일예배

고린도를 뒤로하고 5시간 이상 북쪽으로 달려 메테오라에 토요일 밤에 도착했다. 이튿날 주일예배를 드리기 위해 마침 호텔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모든 일행이 정성진 목사님, 광승현 목사님과 함께 예배를 드렸다. 우리가 예배를 드렸던 그 교회는 그리스 정교회 예배당이 라 웬만해서는 오픈해주지 않는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성찬식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허락되었다.

### 11. 메테오라 수도원

‘메테오라’는 ‘공중에 떠 있다.’는 뜻으로 이 일대에 있는 거대한 바위 꼭대기에는 14세기에 세워진 수도원들이 있었다. 정치적인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높은 바위 봉우리 위에 수도원들이 건축되었다. 이중 가장 규모가 큰 메테오라 수도원은 높은 암벽 위에 손으로 얹어 놓은 듯한 공중 수도원으로 007 영화에도 나온 곳이다. 수도원 방문 시 의상 팁을 드리면, 남자는 반바지와 민소매 차림이면 입장이 불가하고 여자는 무릎을 덮는 치마나 스커트를 준비해야 한다.



### 12. 루디아기념교회

그리스에서의 마지막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많은 고초를 겪으면서도 열심으로 복음을 전한 빌립보였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복음사역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어서 바울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는 교회였다. 바울은 거기서 처음 만난 자색 옷감 장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유럽의 첫 세례교인이 된 루디아를 기념하는 루디아기념교회를 방문했다.

### 성지순례를 마치며

버스를 타고도 몇 시간을 힘들게 가야 했던 길을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오직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었던 것을 생각하면 감사함과 함께 마음 한구석이 저며 왔다. 그동안 아무것도 아닌 일에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던 나를 돌아보게 하였고, 하나님이 왜 지금 여기에 오게 하셨는지 앞뒤 재지 않고 순종하게 하심에 감사했다. 끝으로 오빠같이 든든한 분위기 메이커 김만석 목사님, 땀을 뻘뻘 흘리시며 항상 뒤를 지켜주신 최중운 목사님, 멋진 순간을 담아주신 이사무엘 간사님, 늘 묵묵히 성도들을 챙기신 이미경 사모님, 어디서나 멋진 찬양으로 피로를 풀어주신 정성진 목사님, 처음부터 끝까지 성도들을 살피시고 이끌어주신 광승현 목사님, 8박 9일간 동고동락한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이 모든 시간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가능케 하신 존귀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카리스찬양단

#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장미리 집사님

글 우주희 기자

## 당신은 지금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계신가요?

‘연인’이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병자호란이라는 시대적 상황 앞에 놓인 두 남녀의 애틋한 사랑이 보는 사람의 마음까지도 아리게 만듭니다.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아마 대부분 그렇다고 손을 들 것입니다. 그러나 ‘열렬히’라는 단어가 하나 붙으면 슬그머니 손을 내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연인처럼 열렬히 사랑한다는 고백은 너무나 귀하지만 또 동시에 희귀합니다. 기독교 방송에서 말고, 내가 소속된 교회 모임에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을 언제 들었는지 기억조차 까마득합니다. 그런데 그 귀한 고백이 한 집사님을 통해 들려와 그분을 만나보았습니다.

## 미리 집사님은 열애 중

가을의 끝을 알리려는 듯 기온이 뚝 떨어진 11월의 어느 화요일에 장미리 집사님을 만나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리 좋기로써니 그렇게까지 좋을까 싶기도 하고, 또 그 귀한 고백을 자꾸 다시 들어보고 싶기도 하여 여쭙보았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그렇게 좋으세요? 도대체 얼마나 좋으세요?” 하고 묻자 미리 집사님은 “하나님이 너무 좋아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만큼 좋고, 또 하나님과 함께 보낼 내일이 생각만 해도 좋아서 아침이 오는 것이 기대된다.”고 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영락없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믿고 사랑하

지만 어떻게 저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는지 볼수록 신기하고 부러웠습니다. 도대체 이 사랑은 언제,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

미리 집사님은 친가로 4대, 외가로 5대째 이어져 온 믿음의 집안에서 자랐고, 고3 시절 미대 입시를 준비하면서도 예배 한 번 빠진 적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후로 청년부 생활도 열심히 했고,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믿음 생활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고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을 찾고 원하는 마음만큼은 간절했지만, 그 시절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은 결혼 후 얻은 첫 아이 진영이가 어렸을 무렵이라고 합니다. 삶에 주님을 깊숙하게 모신 것은 10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과 밀착된 삶을 살면서 느낀 가장 큰 변화는 그동안의 물 흐르듯 흘러왔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눈이 뜨여진 점이라고 하셨습니다.

## 자녀 삼아주심에 대한 감사

은혜와 감사는 뭘래야 뭘 수 없는 관계인 것일까요? 미리 집사님께서는 당연한 일이 없습니다. “아이들 하고할 때 데리러 가면 무사히 다시 만나는 게 감사해요. 그냥 감사한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해요. 아이들과 무



1



2

1. 조이풀장년부 사랑빛마을 리더모임  
2. 조이풀장년부 소그룹 사랑빛 5패밀리

사히 다시 만나는 게 당연한 일이 아니잖아요? 자녀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비록 잠결에 짜증을 낼지라도 존재 자체로 너무 귀해서 또 감사해요.” 미리 집사님의 감사는 대단한 것에 대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대단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틀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매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실로 대단한 것인데 그저 우리가 느끼지 못하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또 수많은 감사 가운데에서도 가장 큰 감사는 자신을 자녀 삼아주신 것에 대한 감사라고 고백하십니다. “제 인생 중 하나님께서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은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 하나로 모든 얘기가 다 된 거죠. 이미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주셨기에 저는 하나님께 더 바라는 것도 없어요. 가장 좋은 것을 이미 받았잖아요.”

삶의 고난이 찾아왔을 때도 미리 집사님의 감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어차피 해결책은 내게 없으니 하나님께 문제를 가져가요. 그러면 내 지식으로는 떠올릴 수도 없는 깨달음을 주세요. 그건 다 좋은 것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고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도 진짜 좋은 것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 사랑하면 궁금해하게 되고, 궁금해하면 들려요.

그 선한 하나님의 지혜는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여쭙봤습니다.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되, 일차원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많이 들을 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보통 말은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 들을 시간은 미처 두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 주세요. 나 지금 어때요?’ 하고 뒤로 휩 돌아서면 하나님은 ‘물어봐 놓고 어디 갔니?’ 하실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하나님께 들을 줄도 알아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윽고 듣는다는 것은 침묵의 기도인지 질문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무슨 마음일지 하나님 마음을 자꾸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뭘 원하시길래 이 상황이 벌어졌지? 내게 해 주고 싶으신 이야기가 뭐지? ‘어떤 방향으로 이 일이 흘러가길 원하세요?’ 하고 하나님 마음속을 막 파헤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기도에 공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저는 하나님 마음을 많이 궁금해했던 것 같아요.”

## 하나님과의 행복한 동행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9>

“10대 시절부터 삶의 중심을 변함없이 잡아주는 이 말씀을 붙들고 저는 여전히 나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행복한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나 좋은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시는 자리에서, 허락하시는 방법을 통해 많은 영혼들에게 전할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이 궁금할 리 없습니다. 미리 집사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해서 그 속을 헤엄치고 다녔던 것이 아닐까요? ‘지금 사랑하지 않는 자, 모두 유죄’라는 글을 본 기억이 납니다. 우리 모두,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마음속으로 풍덩 뛰어 들어 봅시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행복한 동행에 동참합시다.



자녀와 가정예배

# 우리 교회 코칭사역 이야기 ③

글 한종진 장로

» 거룩한빛광성교회와 기독교코칭센터(한국코치협회) MOU(상호협력약서) 체결



2023년도 하반기 성경대학으로 열린 제10기 CCL(Christian Coaching Leadership) 과정이 10월 29일부로 종료되었다. 33명이 문을 두드렸다가 28명으로 과정을 시작했고, 건강 문제 등으로 중도에 3명이 멈추고, 25명이 전 과정(8주)을 마치고 수료증을 받았다. 2017년 2월 시작으로부터 7년간 총 10기의 교육을 통해 166명이 크리스천 코칭 교육에 참여했고, 133명이 과정을 수료했다. 그동안 한국코치협회가 인증하는 전문코치(KPCC) 11명, 협회코치(KACC) 25명이 탄생했고, 이들이 함께 모이는 '크리스천코칭사역팀'에서는 CCL 과정을 수료한 코치들이 지속적인 코칭 훈련을 하고 있다. 전문 코치들은 전 교인 누구나 코칭을 요청하면 실제로 이에 대한 코칭을 하는 봉사활동을 3년째 하고 있다.

코칭은 듣기와 말하기를 기본으로 하기에 대화법으로도 소개되는데 성경을 바탕으로 하는 코칭은 일명 '하나님의 대화법'이라고 소개되고 있다. 이 내용의 일부는 우리 교회 향존직 임직 예정자들의 리더십 양성을 위한 '섬김사관학교' 과정에서도 '소통의 리더십'으로 소개되고 있다. 2021년도에 시작하여 2022년도까지는 1회씩 강의를 했으며 2023년도에는 2회 강의 요청을 받았다. '섬기는 교회'로서 임직자들이 섬김의 의미와 방법을 바로 알고 실제로 섬김의 과정에서 하

나님의 방법으로 듣고 말하기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바르게 인식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취지의 섬김사관학교 교육이 의미가 있다는 것은 해마다 섬김사관학교에서 받은 영향으로 크리스천 코칭에 대해 더 잘 알고 싶어서 코칭교육(성경대학)에 참여하시는 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크리스천 코칭은 성경 말씀이 코치를 통해 고객(코칭 받는 사람)의 삶에서 어떻게 인식되고 어떻게 삶에 반영되는지를 다시 정리하게 하는데도 도움을 준다. 머리뿐만 아는 성경 구절이 아니라 가슴과 몸을 움직이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어떻게 변화와 성장의 원동력으로 작용하는지 느낄 수 있기 때문이다. 코칭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통한 실제적 변화를 수반하는 것이다.

그러기에 코칭은 강력하다. 그 변화의 선택도 고객 자신이 하기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을 선택하게 되고, 그 선택을 한 본인이 스스로 기꺼이 행동으로 옮겨 스스로 변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성인들이 아니라 젊은 사람(청소년과 청년)들에게도 잘 맞는 방법이다. 사회에서는 대기업을 중심으로 CEO(최고경영자)와 임원급의 코칭을 넘어 중간관리자와 현장 실무직으로까지 전파되고 있고, 중소기업에서도 최고경영자(대표) 및 임직원들에게 전파되는 속도가 점

점 빨라지고 있다. 교회 측면에서는 우리 거룩한빛광성교회가 가장 오래되고 자체적으로 지속적인 코치 양성 시스템을 가장 체계적으로 구축한 교회이다.

금년도에 우리 교회에서 코칭의 의미가 큰 몇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우리 교회가 코칭 관련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이미 받은 교육은 CCL이라는 한 가지 교육에 집중된 측면이 있다. 앞으로 교회의 모든 사역에 코칭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좀 더 다양한 코칭을 습득하여 사역별 활동에 더욱 적합한 코칭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는 교회를 넘어 한국코치협회의 기독교코칭센터(향후 기독교코칭협회로 독립 예정)와 협력하여 발전하기 위해 양 기관이 MOU(상호협력약해각서)를 맺었다(2023.11.19.). 그러한 협력의 일환으로 금년에 제2회를 맞는 크리스천코칭축제의 후속 행사로 '교회와 함께하는 크리스천 코칭의 현황과 미래 전망'이라는 제목의 강의(강사: 연세대 권수영 교수)를 우리 교회에서 했다(2023.11.19. 오후 2시 비전홀).

또 하나는, 수능시험을 마치고 청년부로 소속을 이동하기 전까지의 고3에게 코칭을 통해 향후의 진로나 생활 방법 등을 미리 설계하도록 돕는 코칭 봉사를 금년도부터 실시하도록 고등부와 협의를 하고 있다. KAIST(한국과학기술원), 동국대, 한동대 등의 학생들을 코칭하면서

경험한 내용들을 활용하여 우리들 자녀인 고3 학생들에게 졸업 이전에 미래를 설계하는 기회와 코로나 팬데믹으로 등교가 불규칙했던 과정을 겪은 그들에게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너무 늦지 않게 알 수 있도록 돕는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향후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대외협력 활동과 연계하고 우리 교회의 크리스천 코칭 문화 확산과 명실상부한 시스템 구축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수준 높은 인증자격코치(한종진 KSC: Korea Supervisor Coach)가 탄생한 것이다. 날로 증가하는 CCL 수료자들이 더 다양하고 활발하게 우리 교회의 크리스천코칭센터 설립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기대되는 시점에 도움이 되는 일들이다.



» CCL 10기 마지막 강의날. CCL 10기와 선배 코치들의 코칭 실습 장면



» CCL 10기 수료자들과 선배 코치들이 함께 찰칵!



» MOU 체결 후 한자리에 모인 기독교코칭센터 관계자와 거룩한빛광성교회 코칭 팀

# 농어촌 교회 목회자를 향한 40년 사랑, AD농어촌방송선교회

글 전영의 기자

한국 농어촌을 변화시킬 지도자는 그곳에 파송된 목회자뿐이라는 일념으로 40년간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목회를 돕고 있는 AD농어촌방송선교회 대표 차재완 장로(충신교회)를 만났다. 인터넷이 보편화되지 않았던 80년대부터 지금까지 1,700여 명의 농어촌 목회자들이 AD농어촌방송선교회로부터 녹음테이프에 담긴 목회 자료를 제공받았다. 전 세계가 인터넷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지금, AD농어촌방송선교회의 활동이 궁금하다. 차재완 장로는 성우 최수민 권사의 남편이고, 영화 제작자 차지현·배우 차태현 씨의 아버지이기도 하다.



AD농어촌방송선교회 대표 차재완 장로. AD농어촌방송선교회는 한국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목회를 돕기 위해 1984년 차재완 장로가 만든 선교단체다

## AD농어촌방송선교회를 소개해 주세요.

AD농어촌방송선교회는 농어촌 교회를 섬기기 위해 1984년 결성한 선교단체입니다. 당시 저는 KBS TV 제작지원실에서 근무했는데 방송국 내의 기독교 신우회와 많은 방송인이 뜻을 함께했습니다. 'AD'는 라틴어 'Anno Domini'의 약자로 '그리스도의 해'를 뜻하며, AD농어촌방송선교회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기쁨을 농어촌에 전파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결성했습니다.

##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선교 활동을 하게 된 계기는 무엇입니까?

KBS 근무 전 TBC 공채 성우로 활동하면서 성경 낭독, 성경 드라마 등을 녹음테이프 제작해 농어촌 교회를 대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했습니다. 6년 만에 3억 원의 빚을 진 채 사업을 접어야 했지만, 그때 접한 농어

촌 교회의 실상은 제 마음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여름 무더위를 허름한 종이부채 하나에 의존한 채 설교 준비하시는 목사님, 종탑이 없어 종을 땅바닥에 두고 새벽종을 치는 교회, 장마철이면 빗물이 새 예배당 바닥에 물이 고이는 교회, 한겨울 칼바람을 막고자 깨진 유리창에 비닐 커튼을 쳐 놓은 교회, 그 속에서 온몸을 진땀 뽀크린 채 기도하시는 목사님의 꼴록거리는 기침 소리.

선풍기와 난로도 사드리고, 종탑도 세워주고, 교회 건물 보수공사도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지만 6억 채무자인 제가 그 결핍을 채워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농어촌 교회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 AD농어촌방송선교회에서는 그동안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40년 전만 해도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곳은 방송국이었

습니다. 저는 방송국으로 들어오는 최신 뉴스,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 명사의 강연 등을 녹음한 후 시골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4시간짜리 자료로 재편집해서 보내드렸습니다.

녹음테이프에는 담임목사님의 주일 설교 자료 1시간, 사모님이 마을 여성을 대상으로 강의할 수 있는 자료 1시간, 주일학교 선생님이 4주 동안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자료 1시간, 그리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1시간을 담았죠.

## 몇 명의 목회자에게 녹음테이프를 보내셨나요?

처음에는 임의로 선정한 농어촌 교회 목회자 50명에게 녹음테이프를 보냈는데 3년 후 300명, 10년 후 1,150명, 그리고 가장 많을 때는 1,700여 명이 되었어요. 인터넷이 보편화되면서 1,700명이 넘었던 AD농어촌방송선교회 회원 수는 40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녹음테이프 보내기' 사업도 지금은 성격이 달라졌어요. 400여 회원들은 40년 전부터 교류한 8090세대 목회자들로 우정이 끈끈하죠. 회원들은 선교회로 다양한 소식을 보내옵니다. 그러면 아내와 저는 그것을 재밌게 구성해 CD에 담은 후 다시 400여 명의 회원에게 보냅니다. 목회 자료를 담았던 녹음테이프가 회원들 간 소식을 이어주는 CD로 바뀐 거죠.

## 방송국 근무가 농어촌 교회 선교에 어떤 도움이 됐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도 일반인의 방송국 출입은 쉽지 않았어요. 시골교회 목사님들께 저는 큰소리를 쳤죠. "전도할 사람이나 전도한 사람 있으면 모시고 오세요. 방송국 구경시켜 드릴게요." 버스를 대절해서 오시는 목사님도 계셨어요. 목사님들이 오시면 KBS 신우회 회원들이 팔 걷어붙이고 방송국을 안내하곤 했어요. 견학 후 방송국 식당에서 식사 대접을 했죠. 당시 방송국 식당 밥값이 1,500원이었어요. 저는 부담이 없고, 목사님들께는 좋은 추억이 되고, 37년 동안 제가 근무한 KBS와 신우회 회원들에게 감사드려요.

## 그 외 AD농어촌방송선교회의 사역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주로 목회자를 돕는 일을 했죠. 한 사람의 목회자를 살리면 교회를 살리고, 농어촌 마을을 살리게 되니까요. '목회자 부부와 자녀 이스라엘 선교 여행 및 해외교회 탐방 보내주기', '목회자 자녀 장학금 수여하기', '농어촌 교회 각종 집회 무(無) 사례 초청강사 하기' 등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농어촌 교회에서 부르면 총청도든 전라도든 따지지 않고 달려갑니다. 물론 사례비를 받지 않죠. 기어이 사례비를 손에 들려주면 다시 그 교회에 감사헌금으로 내고 오죠. '월간『AD 문화광장』' 발행, '목회자 무료 심터 운영' 등이 현재 진행 중인 사역입니다.

## AD농어촌방송선교회의 선교비를 어떻게 감당하고 있습니까?

선교회 사무실은 태현이 소유의 건물에 있어요. 또 그곳에 방 하나를 내줘서 지방에서 목사님들이 오시면 주무실 수 있는 '목회자 쉼터'를 마련했어요. 얼마 전까지 아르헨티나에서 오신 선교사님이 3개월 동안 그곳에서 지내셨어요. 사무실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데다 태현이가 십일조의 일부를 AD농어촌방송선교회에 내서 이 선교회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6억 원의 빚도 태현이가 갚았습니다.

## AD농어촌방송선교회의 비전을 말씀해 주세요.

AD농어촌방송선교회는 40살, 저는 80살이 되었습니다. AI 시대 제가 뭐 대단한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미력하나마 하나님께서 부르신 날까지 농어촌 교회 목회자를 돕고 싶고, 하나님께서 선교회를 이끌어 갈 젊은 지도자를 보내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1. 농어촌 교회 목회자 자녀 KBS 방송국 견학  
2. 농어촌 목회자 자녀 해외 교회 캠프 보내주기 사역  
3. 아들 차태현 씨, 아내 최수민 권사와 함께. 텔런트 차태현 씨의 경제적 지원이 있었기에 AD농어촌방송선교회 운영이 가능했다

# 이스마엘 Ishmael

글김은숙기자



최근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의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전쟁이 마침내 지상전에 돌입하여 날로 격화되고 있다. 무고한 생명들이 무자비한 폭격으로 처참하게 스러져가고 도시는 폐허가 돼가고 있다. 그 참상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이 사태는 자칫 제5차 중동전쟁으로 번질 위험을 안고 있어 각국이 불안에 휩싸여 있다.

이스라엘과 파키스탄의 영토분쟁의 근원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브라함이 그의 부인 사라에게서 늦게까지 자식을 얻지 못하자 사라가 여종인 애굽 여인 하갈에게 아브라함의 시종들기를 권하여 아브라함이 86세 되던 해에 아들을 얻으니, 그가 곧 이스마엘 곧 아브라함의 서자이다.

그 후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 마침내 사라가 이삭을 낳으니, 이삭과 이스마엘은 이복형제로 이때부터 사라와 하갈, 이삭과 이스마엘의 사이에 심한 갈등이 싹트기 시작했다. 하갈이 임신했을 때, 사라를 경시했던 일로 이삭이 태어난 후부터는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한다. 또한 이스마엘은 이삭이 젖떨 무렵부터 이삭을 놀리자 이를 안 아브라함이 둘은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다 하여 하갈과 이스마엘 모자를 광야로 내쫓았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창세기 21:10>

쫓겨난 그들이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가족 부대에 담이온 물도 떨어져 아들이 죽을까 두려운 하갈이 큰 소리로 통곡하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1:17~18>

이때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발견하여 물을 길어다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창세기 21:20>

하나님의 말씀대로 유대인들은 이삭의 후손 곧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마엘은 유목민족인 베두인(Bedouin)족을 이루었다. 이는 곧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신지라” <창세기 21:13>는 말씀을 이룬 것이다.

오늘날 사우디아라비아, 이라크, 이란, 쿠웨이트 등은 다 그들의 후손으로 유대민족과 두 민족 사이에 끊임없는 영토분쟁과 종교분쟁이 반복되고 있다. BC 587~586년경 바빌로니아인들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을 추방하였고, AD 70년경에는 로마제국이 유대 지방에서 유대인들을 쫓아냈으니 이때부터 유대민족은 해외 각국으로 흩어지는 디아스포라(diaspora)의 삶을 살게 되었다.

“..... 네가 또 땅의 모든 나라 중에 흩어지고”

<신명기 2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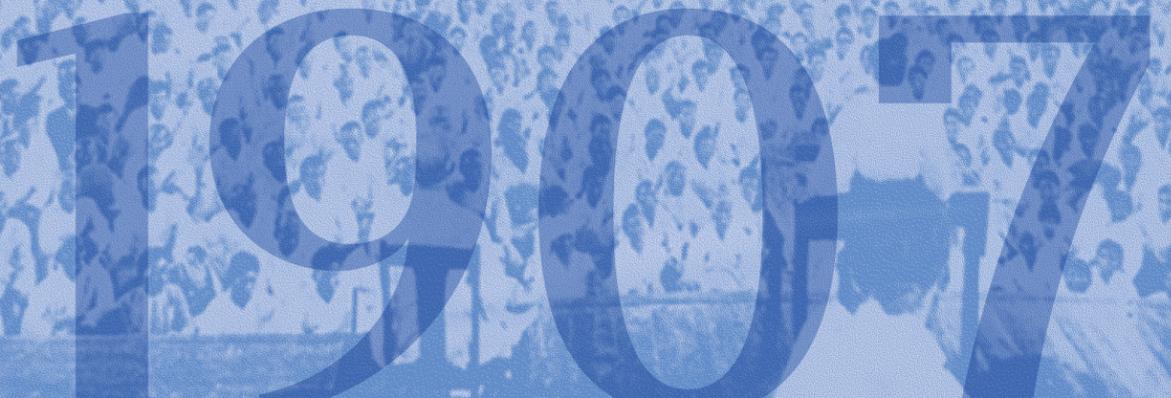
1896년 유대계 기자 테오도르 헤르츨(1860-1904)에 의해 출간된 『유대국가』라는 저서를 기점으로 흩어져 핍박받던 유대민족에 시오니즘(Zionism: 이스라엘 회복운동) 사상이 일어나, 드디어 1948년 8월 15일 유대민족은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을 건국하게 되었다. 그 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에 끊임없는 영토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기에 근동 국가와 유럽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간섭을 하니 이곳은 전 세계의 화약고가 된 것이다. 지금도 계속되는 아랍 전쟁의 참상은 끝이 보이지 않는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빨리 그 땅에 분쟁이 끝나게 하시고 평화가 찾아오길 기도한다.

# AGAIN, 1907!

## 평양 신앙 각성 운동

기획 김형수기자

2024년을 시작하며 『거자씨』 특별기획은 1907년 평양 대부흥 (대각성 운동)을 주목했습니다. 그 시절 조선 땅에 불어온 성령의 불길은 어떤 연유로 그렇게 활활 타올랐는지, 그 불길이 2024년 다시 이 땅의 교회에 타오를 수 없는 것인지, 교회를 전공한 임희국 교수께 고견을 구했습니다. ‘AGAIN 1907!’ 총 4회에 걸쳐 임희국 교수의 글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 ‘AGAIN, 1907!’ 평양 신앙 각성 운동 ①

글 임희국(장로회신학대학교 명예교수)



## 1 사경회(查經會) 기간에 일어난 신앙 각성 운동

1907년 1월 평양에서 일어난 신앙 각성 운동은 사경회 중에 일어났다. 사경회는 교인들이 한자리에서 일정 기간 함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배우는 모임이다. 해서, 그 당시 사경회의 이모저모를 살펴보고자 한다.

사경회 일정은 오전에 성경을 배우고 오후에 거나 집을 방문하여 전도하고 저녁에는 전도한 자들과 함께 부흥 집회로 모였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19세기 이래로 정착되어 온 것이었다. 선교사들은(예: 제임스 게이) 한국인들이 책 읽기를 매우 좋아하고 교육열이 높아서 ‘책 중의 책’이라 할 수 있는 성경을 즐겨 배우려 한다는 점을 파악했다. 이러한 성경 배우기인 사경회가 한국 개신교(장로교회)의 전통 가운데 하나로 정착되었다.

사경회는 남녀가 따로따로 남자사경회와 여자사경회로 모였다. 사경회 기간은 대략 두 주간 안팎이었다. 사경회에서 가르치는 선생은 선교사들과 한국인 평신도 지도자(조사)들이었다. 배우는 학생들은 신앙 연륜과 성경 지식 정도에 따라 여러 반으로 나뉘었다. 간혹 전

도인, 권서, 속장 등의 평신도 지도자들을 따로 모아 사경회를 열기도 하였다.

20세기 초반 신앙 월간지 『신학월보』에서 “사경회 하는 뜻”을 밝혔는데, 이는 ‘1)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가 감사와 감격 속에서 진리에 관하여 많은 것을 더 배우고 싶은 열망에서 비롯되었고, 2)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성경 배우기를 통해 예수의 명(命)을 찾고자 했고, 3) 이전에는(19세기 말) 성경책 구하기가 대단히 어려웠는데 이제는 많이 보급되어서 누구든 쉽게 원하는 대로 구해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한 이 잡지는 성경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편지”라고 하였다. 즉 성경을 사람이 기록하였으나 자기 뜻대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묵시(계시)’하신 것인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감화하여 묵시하시니 ‘성신(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기록하였다고 했다.

## 2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일어난 신앙 각성

1906년 10월, 평양 신앙 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약 3개월 전이었다.



신앙 운동의 요지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죄 고백, 치유와 변화, 그리고 화해와 회복이다

이 도시의 장대현교회에서 며칠 동안 저녁 집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 미국 뉴욕에서 온 존스톤(Howard Agnew Johnston) 목사가 참석했는데, 그는 최근에 인도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은혜(성령의 역사)에 관하여 설명했다. 그리고 그가 청중을 향해 “성령 받기 원하는 사람 일어나라.”고 크게 외치니 그 교회의 장로 길선주가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 이후에, 평양의 교인들은 성령의 임재를 위하여 “날마다 한 시간씩” 기도하기 시작했다. 선교사들도 물론 기도했다. 이 기도는 1907년 1월에 열리는 사경회가 열릴 때까지 계속 이어졌다.

예정한 대로, 새해(1907년) 1월 2일에 장대현교회에서 평양의 남자사경회가 열렸다. 저녁(전도)집회는 1월 6일 저녁부터 시작되었다. 전국 많은 지역에서 약 1,500명 이상의 남자 교인들이 이곳으로 모였다. 여자 교인들은 네 곳의 다른 장소로(사창골교회, 산정현교회, 남문밖교회, 서문밖교회의 남자들 사랑채) 각각 나뉘어 모이게 하였고, 나이 어린 남학생들은 숭실대학(Academy) 채플로 모이게 하였다. 선교사들과 한국인 평신도 목회자(조사)들이 사경회를 인도했다. 인도자들은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움이 나타나도록 간절히 기도했다.

## 3 성령의 역사-죄 고백, 치유와 변화, 화해와 회복

1907년 1월 평양 신앙 각성 운동에 참여했던 선교사 방위랑(W. N. Blair)은 이 운동을 신약성경 사도행전의 ‘오순절 성령 사건’의 재현으로 인식했다. 여타 선교사들도 이 운동이 ‘한국 교회의 역사에서 획기적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 1 죄 고백

성령의 역사로 당장 눈앞에서 일어난 사건은 ‘죄의 고백’이었다. 성령이 역사하심에 따라 “지는 죄가 드러나고”, “죄를 자각하고”, “죄 짐에 짓눌려서 크게 울고”, “마룻바닥을 치고 옷을 쥐어뜯으며 죄를 고백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죄 용서를 빌었다”. 그리고 나서 죄 용서의 기쁨을 얻고, “말씀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발견하고, 죄악의 사슬을 끊어 믿음 안에서 “평화를 얻게 되었다”. 도대체 어떤 죄를 고백했을까? 그 종류가 매우 다양했다. 마음에 담겨 있던 죄(미움, 시기, 질투, 증오심, 앙심, 심술, 교만), 밖으로 드러난 악한 행위(거짓말, 눈속임, 사기행각, 술, 담배, 도박, 마

약), 신앙인으로 삼가야 할 직업(주막집)과 첩살이, 형사처벌을 받을 죄(절도, 강도, 간통, 방화, 살인)도 낱알이 고백했다. 죄 고백을 성령의 역사로 보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도저히 토해낼 수 없는 죄 고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억에서 완전히 사라져서 까맣게 잊고 있던 지난날의 죄과를 마치 활동사진(영사기) 돌리듯이 생생하게 다시 떠올리게 한다든지, 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극단적인 범죄행위도 낱알이 자백하게 했다.

남녀노소(男女老少) 모두가 죄를 고백했다. 9살 정도의 어린아이도 지은 죄를 고백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점은 공개적인 죄 고백이었다.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고백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공중(公衆) 앞에서도 공개적으로 자백했다. 또, 집회 참석자 뿐만이 아니라 집회 인도자도(서양 선교사, 한국교회 지도자) 지은 죄를 자백했다.

## ② 치유와 변화

죄 고백은 치유 사건이었다. 죄로 말미암아 병들어 있던 인간의 내면이 그 죄를 인식하고 고백하면서 죄를 밖으로 토해내고 그 죄에 대하여 누우치며 회개하는 동안에 치유되었다. 죄 고백의 열매는 삶의 변화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삶에서 정직한 삶으로 돌아선 것이다(예: 훗친 돈과 물건을 되돌려 준 것). 죄 고백에는 이런 식으로 윤리성이 이미 내포되어 있었다. 그 당시엔 예수 믿는 것이 삶의 변화를 수반했다. 예컨대, 어떤 남자가 이전에는 부인과 자주 다투었고 또 술을 많이 마셨으나 이제는 이러한 생활 습관을 버렸다고 했다. 그는 요즘 교회에서 다른 교우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있다고 했다.

## ③ 화해와 회복

죄의 고백은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예컨대, 이제까지 미워하여 질시하던 사람들끼리 서로 감사 안으며 서로서로 자기 잘못을 인정하며 용서하고 용서받는 가운데서 화해하였다. 이런 식으로, 죄 고백을 통한 하나님과 사람의 화해가 사람과 사람의 관계성 회복으로 이어졌다.

## 4 정리

1907년 평양에서 일어난 신앙 각성 운동은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가운데 성경을 배우는 사경회 기간에 일어났다. 이 신앙 운동의 요지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죄 고백, 치유와 변화, 그리고 화해와 회복이었다.



사경회 중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김선주

## 더 깊은 믿음을 가지는 2024년

글 조서영(초등6부)

저는 2024년에 더 깊은 믿음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가지면 좋은 점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친구를 사귄 수 있습니다.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친해진 친구와는 서로 믿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서로 믿음을 나눈 친구는 존중해 주기 쉽습니다. 모든 친구와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믿음을 나누면 쉽고 빠르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우면 다른 사람을 만나도 존중하면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로,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나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믿음을 갖게 되면, 자기 자신을 가장 먼저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행동을 할 때 많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행동을 하기 전에 일어날 일을 더 많이 생각해보고 행동하기 때문에 나에 대한 자신감을 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많은 분야에서 영향을 미치는 믿음을 2024년에 가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을 가장 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24년 나의 새해 소망

글 조재영(중2)

2023년에 나는 중학교에 입학했다. 처음 입는 교복, 처음 가는 중학교에 적응을 하면서 지냈다. 하루 하루 주어진 것을 하다 보니 어느덧 겨울이 되었고, 나는 곧 중학교 2학년이다.

2023년을 되돌아보았을 때 나는 공부의 부분에서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 배우고 싶은 것이 많고, 내가 미래에 하고 싶은 직업도 아직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했다. 그래서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하여 더 노력해야겠다고 생각했다. 2024년에는 공부를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한다면 수행평가나 시험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고 그런 것들 하나하나가 모여 내가 이루고 싶은 것들에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지금 생각하기엔 나의 현재 꿈은 군인이다. 나라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직업인 군인이 너무 멋있어 보였다. 군인이 되기 위해서는 체력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2024년도에는 체력을 기르기 위해 운동을 할 것이다. 지금 당장은 군인이 제일 하고 싶은 직업이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것이 생길 때 바로 할 수 있도록 공부도 열심히 할 것이다.

또한 내가 살고 있는 안전한 환경에 감사하며 하루하루 감사한 마음으로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으로 당장 앞에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겠다.



## 더 깊은 믿음을 가지는 2024년

글 이철 성도

- 1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어왔지만(7살 때부터) 성령 체험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심으로 거듭나고 변화된 성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인격적으로 저를 만나주시길 간절히 기도 드립니다.
- 2 정성진 목사님의 크로스로드 사역과 광승현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지하지 않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 3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40대 중반 중년이 되고 보니 몸이 여기저기서 아프다고 신호를 보냅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당연한 것으로 알았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였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을 주신다면 주를 위하여 쓰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가고 싶습니다.
- 4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감사하면 감탄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고 전에 정성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작은 것에도 감사하고 만족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주신 은혜가 많은데 당연한 줄 알고 감사하지 못하고, '이건 주셨는데 저건 왜 안 주십니까?' 하며 원망 불평하며 스스로 자책하며 우울해하던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 5 북한 동포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북한 땅에도 자유 복음이 들어가 하루빨리 김정은 정권이 망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범 수용소가 없어지게 하시고 남북한이 복음으로 통일되어 한라에서 백두까지 호흡 있는 자마다 주를 찬양하게 하소서.
- 6 담배를 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전 나약하고 부족합니다. 제 의지가 아닌 성령님 주시는 믿음과 권능으로 담배를 끊게 하여 주옵시고 폐 기능이 더 떨어지지 않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 7 마지막으로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식이 아닌 지혜를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허락하셨듯이 저에게도 지혜를 주시어 살아가면서 부딪치는 문제들 주님 주시는 지혜로 잘 극복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 2024년의 소망

글 지성찬 장로(시인, 화가)

새해는 교회 부흥의 원년이 되기를 소망한다. 일제 36년 강점기와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부흥의 기적을 이룬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선물이라고 생각한다. 1970년대의 한국교회가 큰 부흥을 이룬 가운데 경제 기적을 이루었다고 믿는다. 이 경제 부흥기에 전사로서 몸 바쳐 일한 세대가 지금의 7~80대 노인들이다. 정부와 국민은 이들의 노고를 기억하고 보상해야 할 책무가 있다. 지금 한국은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를 맞고 있다. 이 위기를 잘 수습하는 방법은 교회의 부흥에 있다고 본다. 여기서 우리는 물러설 수 없고 물러나서도 안 된다. 세계적으로 불처럼 번지는 전쟁과 경제불황의 파고를 넘어야 한다.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도 주일학교의 부흥에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주일학교의 쇠락은 교회의 쇠락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또한 새해에는 거룩한빛광성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따뜻한 교회가 되어 힘들고 지친 사람들에게 위안과 새 힘을 주기를 소망한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고 사랑의 실천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체온이 느껴지는 따뜻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구름처럼 많이 몰려와서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거룩한빛광성교회가 천국의 효시가 되기를 소망한다.

새해에는 청소년들이 행복해지기를 소망한다. 학교생활이 즐겁고 폭력이 없으며 서로 사랑하고 아끼는 학교생활을 하기를 소망한다.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며 배우는 즐거운 학교생활을 하기를 소망한다. 스승이 제자를 가슴으로 사랑하고 몸과 마음을 다해 가르치는 풍토가 자리 잡기를 소망한다. 그런 교육환경 가운데서 걸출한 인물들이 길러지기를 소망한다. 그리하여 새해에는 우리나라가 에덴동산과 같은 낙원이 되기를 소망한다.



# 경기 양주시 장흥면 푸른빛광성교회 (www.bluech.or.kr)

글 김용기 기자 사진 푸른빛광성교회 제공

## 지역사회 중심 사역을 실천하는 푸른빛광성교회

“한국교회는 초고령사회 목회를 시작해야 합니다. 벌써 많이 늦었습니다. 차세대만큼이나 중년 세대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사역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문재진 푸른빛광성교회 목사는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에서 11년째 목회를 하고 있다. 장흥은 서울의 북부와 고양·파주지역 사람들에게 가장 널리 알려진 국민유원지이다.

“사람들의 왕래는 빈번한 곳이지만 정착하는 사람은 없는 곳이에요. 연중 주말에는 사람들로 붐비지만, 평일에는 한가한 곳이에요. 개척하고 3~4년간은 참 어려운 목회를 했습니다.” 개척할 당시에는 교회 옆에 아파트 한 동 밖에 없어 전도마저 막막했었다는 문 목사는 지역의 특징을 연구하며 목회의 방향을 ‘지역을 섬기는 목회’, ‘은퇴 후의 전원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제2의 비전을 갖게 하는 중년 목회’로 방향을 설정했다.

때마침 양주시에서 장흥 지역을 전원주택 단지로 개발할 수 있도록 제한을 일부 해제하며 퇴직 후 전원생활을 하기 위해 주택을 짓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나둘 늘어나며 주변에 450여 가구의 대단위 주택단지가 형성됐다.



☞ 문재진 푸른빛광성교회 목사

☞ 푸른빛광성교회는 거룩한빛광성교회가 교회 개척자금을 지원한 형제교회이다

☞ 푸른빛광성교회 예배당



## ‘따복공동체사업’ 참여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 실현

문 목사는 정부가 제공하는 주민 복지형 공모사업에 눈을 돌렸다. 지역주민들의 문화적 혜택을 늘려주기 위해 경기도가 제공하는 ‘따복공동체사업’에 직접 계획서를 만들어 공모에 참여하며 예산을 확보해 어르신 드럼교실, 지역주민을 위한 커피교실 등을 운영하며 지역주민과의 접촉을 늘려나갔다.

“주민들의 반응이 참 좋았어요. 서울에서 이사를 들어온 이들이 문화를 누릴 수 없어 아쉬워했는데 이런 행사들이 교회에서 이뤄지니 사람들의 관심이 날로 늘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 비영리법인 ‘마중물공동체’를 만들었죠.”

교회가 주관이 되고 지역주민들의 참여하는 비영리법인을 통해 1년에 1천만 원의 예산을 양주시를 통해 확보했다. 지역주민 음악회, 영화제, 어르신 기억력 회복을 위한 과학교실 등의 사업을 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도 스스로없이 교회를 찾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했다.

푸른빛광성교회는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늘어나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서 지역사회의 인정을 받을 즈음, 코로나19가 찾아오며 그동안 해오던 행사를 멈출 수밖에 없었다.

“조금은 아쉬웠지만, 그동안 나이가 드신 주민분들과 함께 공모 사업을 하고, 결과를 보고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코로나 기간을 거치며 이제는 좀 더 직접적인 방법으로 지역주민을 섬길 방법을 찾았고, 마침내 발견했어요. 우리 교회를 아예 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 교회 1층을 마을회관으로 제공, 전도 기회 기대

푸른빛광성교회는 3층 건물의 1층을 마을회관으로 제공하기로 장흥면과 합의하고, 리모델링 사업을 거쳐 2024년 1월부터 마을회관 겸 주민 휴식 공간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교회의 1층 공간을 장흥면에 빌려주는 형태이지만, 주민들이 하루 종일 교회에서 지낼 수 있어 전도할 기회가 그만큼 늘어날 것이란 확신으로 교회가 획기적인 결정을 내렸다.

“주민들이 교회에서 혹시 음주 등 불미스러운 일을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민분들의 의식이 높고, 교회를 지역사회의 중심 공간으로 제공한다는 너무나 좋은 목적에 교인들이 만장일치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푸른빛광성교회는 이제 진정으로 지역을 섬기는 교회, 노년과 중년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비전을 심어주는 교회라는 설립 목적을 이를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 항상 주민들의 방문이 이어지는 교회, 주민들의 관심사를 같이 고민하는 교회가 되리라는 기대를 품고 있다.

“미래 교회는 지금과는 다를 것입니다. 특히 지역을 섬기는 교회의 모형은 지역사회를 배경으로 하지 않으면 역할을 찾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지역사회와 고민을 같이하고 해결책을 찾고 실행하는 교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 주일예배 후 교회 가족이 함께 떠난 야외회에서 성도들이 즐겁게 시간을 보내고 있다

# 푸른빛광성교회의 두 가지 후원 사업 소개

글 김용기 기자

## 1. 지역과 주민을 섬기는 마중물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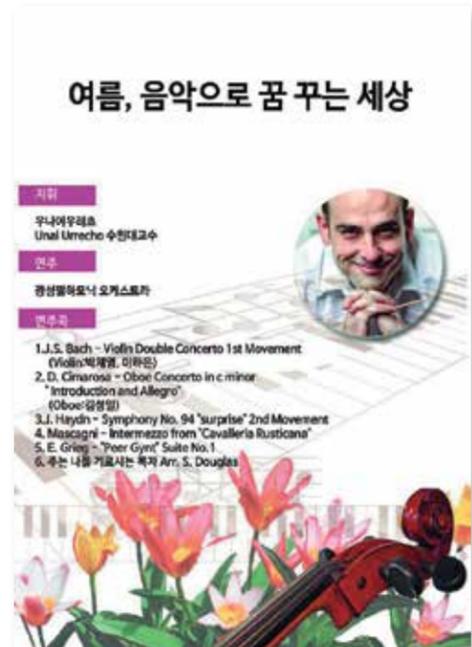
푸른빛광성교회는 지역주민과 함께 비영리법인인 마중물공동체를 운영한다. 마중물공동체는 도시에서 떨어져 있어 문화 활동 기회가 적은 지역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결성된 비영리법인이다. 마중물이 땅속의 샘물을 길어 올리듯이 교회를 지역과 문화의 중심으로 세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한 노력에서 시작됐다.

2015년 세워진 마중물공동체는 푸른빛광성교회의 전신인 일영교회에서 운영하던 작은 도서관 사업을 확대한 것으로 모든 세대의 마을 주민들에게 필요한 문화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작은 도서관 사업을 중심으로 어린이 놀이터 운영, 어르신 기타·사진 교실 운영, 경로당 어르신 특식 지원, 월 1회 문화공연과 영화 상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필요한 재원은 경기도의 '따복공동체 공모사업'에 참여해 지원받아 활용하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의 봉사와 예술인들의 재능기부로 운영되고 있다. 마중물공동체 사업은 세 가지 운영 목표를 가지고 있다. 첫째는 문화 공간 부족과 경제활동으로 인해 문화 활동이 제약된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 둘째는 건강상의 문제와 교통 등 물리적 환경 부족으로 문화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셋째는 지역주민 모두를 대상으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마중물 하우스 콘서트 포스터



광성 오케스트라 공연

## 2. 한국교회의 미래를 제시하는 '미래교회전략연구소'

푸른빛광성교회는 한국교회의 미래를 준비하는 미래교회전략연구소(이사장 신정호, 소장 문재진 목사)를 적극 후원하고 있다. 미래교회전략연구소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는 한국교회의 위기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2023년 6월에 설립됐다. 한국 교계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연구소는 목회자의 역할과 목회전략, 교육 목회 플랫폼 개발, 믿음의 차세대 세우기 등 현실성 있는 전략을 만들어 제시할 계획이다.

특히 다양화, 다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여 교회 변화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고 차별화된 목회 전략을 통해 세대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할 방침이다. 우선은 건강한 교회와 지도자를 세우는 통찰훈련학교와 미래준비학교, 전 세대를 잇는 목회 플랫폼 네트워크 운영, 목회 진로 및 리더십 개발을 위한 아카데미를 개설할 계획이다. 또 목회 컨설팅과 매칭 역량지원, 교육 목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미래 목회를 위한 예측 및 리뷰를 정기적으로 제공해 다양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2023년 여름에는 수련회를 치를 수 없는 작은 교회와 개척교회를 위하여 무료 온라인 수련회를 개최했고, 11월에는 목회자를 위한 세미나를 진행하며 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고 있다.



미래교회전략연구소는 2023년 11월 6일부터 28일까지 '2024 목회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권의 피아니스트 연주회

☞ 인터뷰 후 기자증을 들고



## 선배 기사를 인터뷰하다

글 태경환 학생 기자(중2)

새로운 학생 기자로 선발된 나는 첫 번째 취재 대상을 학생 기자 선배인 최아인 기자로 하기로 했다. 인터뷰도 하면서 평소에 궁금한 것도 물어보면 좋으리라 생각했다.

**태경환 기자(나)**

어쩌다가 『겨자씨』 기사를 지원하게 되었나요?

**최아인 기자**

『겨자씨』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겨자씨』에서 학생 기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관심이 생겼어요. 그런데 소극적인 성격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생각도 해보았지만, 평소에 글 쓰는 것을 좋아하고 글을 다 쓰고 나서의 성취감도 커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태**

『겨자씨』를 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이 있을까요?

**최**

제 기사가 『겨자씨』에 실려서 나왔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아요. 주변에서 호응해주는 분위기도 좋았고요. 아직도 그 분위기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태**

지금까지 기자님이 썼던 기사 중에 고치고 싶은 기사가 있을까요?

**최**

음. 딱히 없는 것 같아요. 그 기사를 썼을 때의 분위기가 있고, 그리고 저는 점점 성장하는 글을 보여주고 싶어요.

**태**

이제 곧 고등학생 기자가 될 텐데 고등학생 기자로서 다짐은?

**최**

아무래도 고등학생이 되면서 공부할 것도 많아지고 해야 할 것도 늘어나면서 일정이 바빠졌어요. 그래서 『겨자씨』를 같이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고 힘들면 그만하려고요.

**태**

후배 『겨자씨』 기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최**

글을 쓰다 보면 굉장히 힘들 때가 있어요. 글이 안 써지고, 시험 기간하고 겹치는 등 힘든 시간이 있어요. 그래도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성숙한 『겨자씨』 기자가 되기를 바라요.



☞ 최아인 선배 기사를 인터뷰하다

이번 기사는 내가 처음 써 보는 기사다. 처음 써 보다 보니 아직 좀 서툴 수도 있다. 그래도 나는 글을 쓰는 것이 즐겁다. 그리고 이 즐거운 글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쓸 것이다. 나는 내 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래도 “계속 쓰다 보면 늘겠지?”라는 마음으로 써나가고 있다. 나는 쓸수록 좋아지는 내 글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다.

# 『겨자씨』를 시작하면서 나의 마음가짐

글 최예준 학생 기자(중2)

한 해가 지나고 새로운 해가 되었다. 사람들은 새로운 해가 될 때마다 '이번 년도에는 이것을 해야지.'라고 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그 목표를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이루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나도 작년에 무슨 목표를 세웠는지조차 기억이 안 난다.

그럼 왜 사람들은 목표를 정하는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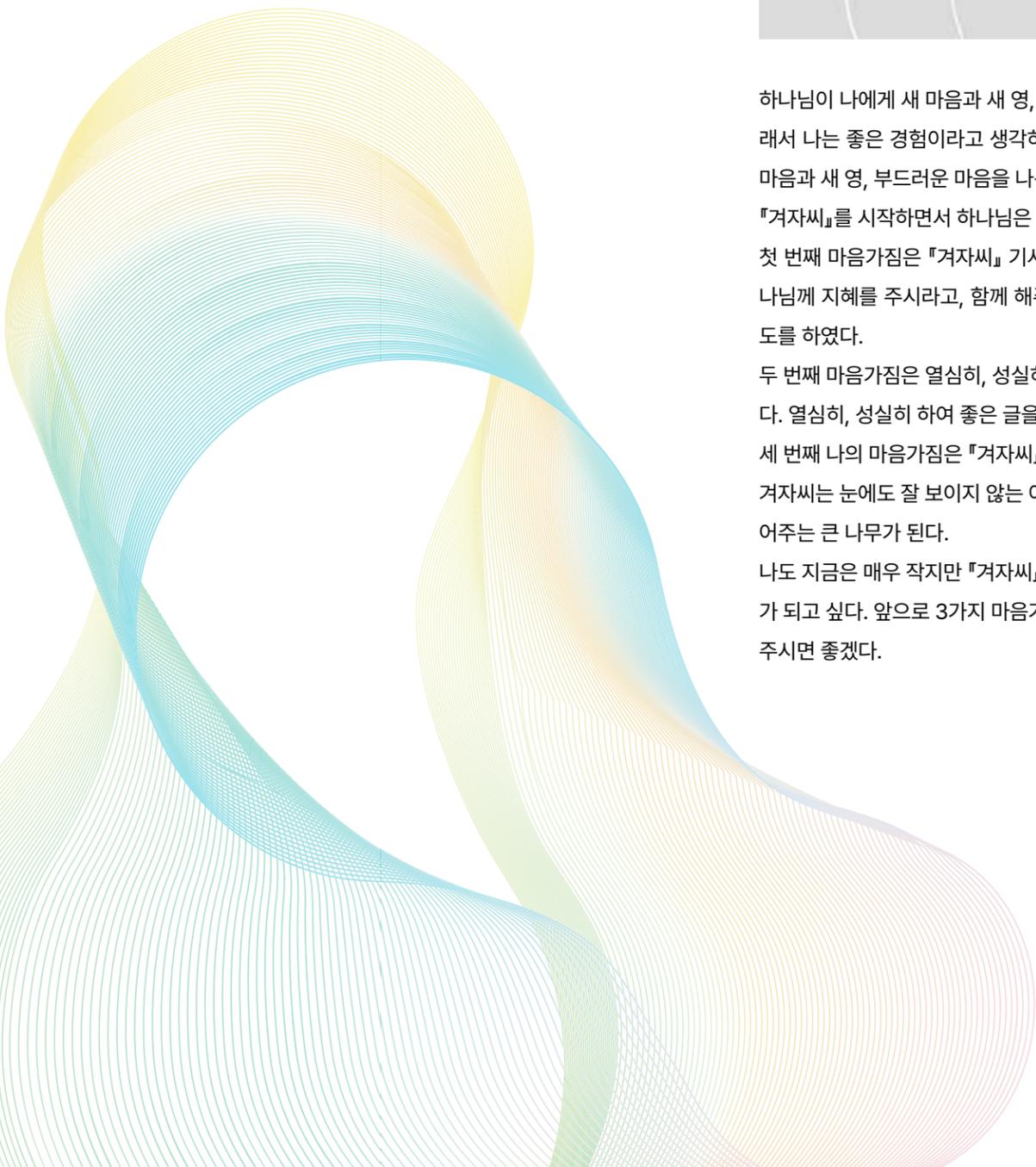
바로 마음가짐 때문이다. 국어사전에서 '마음가짐'이란 '어떤 일에 대한 마음의 자세로 행동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정의한다. 그래서 마음가짐은 중요하다. 마음가짐에 따라서 나의 행동이나 가치관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언가를 새롭게 할 때 마음가짐을 정하고는 한다.

나는 이번에 새롭게 『겨자씨』 학생기자가 되었다. 최야인 선배님이 고등부로 가서서 중등부 학생기자를 뽑는다는 광고를 들었다. 중등부 1-5지파 선생님이신 정은숙 선생님이 나를 추천하셨다. 그전에도 몇 번 나한테 『겨자씨』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겨자씨』 기자 일에 대해서 고민하던 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 주겠다.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내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에스겔 36:26~27〉



≡ 기도와 성실로 학생 기자에 임하며, 『겨자씨』 활동을 통하여 나 스스로도 성장하기를 기대한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마음과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줄 거니까 한번 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았다. 그래서 나는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하고 해보기로 다짐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새 마음과 새 영, 부드러운 마음을 나는 『겨자씨』 기자 일을 시작하는 나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한다. 『겨자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 가지의 마음가짐을 주셨다.

첫 번째 마음가짐은 『겨자씨』 기사를 쓰기 전 기도하기다.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을 가다듬으며, 하나님께 지혜를 주시라고,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도 이 글을 쓰기 전에 기도를 하였다.

두 번째 마음가짐은 열심히, 성실히 하겠다. 나는 『겨자씨』 학생 기자 일을 열심히, 성실히 하고 싶다. 열심히, 성실히 하여 좋은 글을 쓰고 싶고 글쓰기 실력도 늘리고 싶다.

세 번째 나의 마음가짐은 『겨자씨』 학생 기사를 통해 성장하겠다.

겨자씨는 눈에도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씨앗이다. 하지만 점점 커져 새들에게까지 그늘을 만들어주는 큰 나무가 된다.

나도 지금은 매우 작지만 『겨자씨』 학생 기사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큰 나무가 되고 싶다. 앞으로 3가지 마음가짐을 마음에 새기고 기억하며 좋은 글을 써나갈 것이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다.

# 뭐든 똑딱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모임 교회의 만능 재주꾼들이 모여 있다는 백향목선교회

글 & 사진 최아인 학생 기자(고)

## 최아인 기자

안녕하세요.

『겨자씨』 제1기 학생 기자 최아인입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 김유홍 집사

저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안수집사 김유홍 집사입니다.

### [v] '백향목'의 숨은 의미

#### 왜 백향목으로 이름을 지으셨나요?

**김** 중동지방의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옛날에는 그쪽에서 성을 짓는하거나 건축물을 지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나무가 거의 백향목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동 지역에는 이 나무로 인한 전쟁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백향목은 귀하고 비싸기도 하지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을 때 그 나무도 다 백향목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백향목이 중동의 대표적인 나무이고, 성전을 지을 때도 모두 그 나무를 썼기 때문에 선교회 이름을 백향목이라고 짓게 되었어요.



⊗ 우리 집에서도 쓰는 멋진 백향목의 도마

### [v] 우리 백향목을 소개합니다!

**최** 백향목에 지금 몇 분 정도 계시나요?

**김** 회원으로 가입된 분들이 58명이 있습니다.

**최** 백향목의 자랑하고 싶은 점은 무엇인가요?

**김** 저희 백향목은 지금 회원분들 중에 거의 90%가 우리 교회를 다니신 분이지만 타 교회분도 있고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다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과 목공을 함께하면서 전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도 갖고 실질적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백향목선교회가 선교회로서의 역할을 이러한 부분에서 다하고 있다고 봅니다. 작은 교회에서 필요한 가구 같은 것도 백향목에서 만들어서 드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합니다. 우리 교회 필요한 각 부서의 가구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부탁을 받아서 만들기도 합니다.



⊗ 기계 사용 예시를 보여주는 김유홍 팀장님

### [v] 교회에 만능 재주꾼들 어셈블(assembly)!

**최** 지금까지 했던 행사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김** 올리브 향기의 모든 테이블의 상판을 교체하는 작업이었습니다. 90개나 되는 상판을 다 교체해야 해서 많은 사람의 손이 필요했고, 기간도 꽤 오래 걸렸습니다. 백향목 회원분들이 많이 나서서 나무를 자르고, 샌딩하고, 칠하고, 마감하는 데 동참했습니다. 오랫동안 여러분이 고생해서 그 작업을 완수했기 때문에 올리브 향기 상판 교체 작업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 신기한 목공 기계들



### [v] 함께 하고 싶은 백향목

**최** 백향목에 들어오고 싶은 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해주세요.

**김** 일반 공방에서는 기초교육을 하면 강의를 받고는 하죠. 그런데 백향목은 전임자들한테 기초교육을 다 받을 수 있어요. 또 기술을 익혔을 때 전해 받은 기술로 무엇인가를 만들고, 기술적 성취도를 이루게 되면 그것을 좀 나눠줘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나눔의 마음을 가지고 백향목에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새로 오신 분들도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오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본인의 취미생활을 위해서만 오신 분들이 대다수였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교회 선교용품인 십자가 불펜을 만들 때는 손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이전에는 동참하는 분들이 적었지만, 지금은 모두 함께 참여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각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주는 중



백향목의 기계들을 보면서 학교 기술 시간에 본 기계들과 사뭇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다. 또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멋진 일을 하시는 분들이 다양하고 자유로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 인터뷰 후 선물 받은 나무 불펜 (Feat. 내 이름, 그리고 『겨자씨』 기자 수첩과 신분증)



⊗ 팀장님과 함께 찰칵



## 다음세대지만 현재를 살아갈 사랑 넘치는 초등1부

글 전영숙 기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초등1부의 이재광 전 도사의 마음은 남달랐다. 초등학교에 처음 들어와 적응하던 것이 엇그제 같은데 2023년을 마무리하면서, 특히 부서에서 이루어진 활동과 신앙교육을 통해 아이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학생들이 한글을 완벽하게 읽고 공부할 수 없었기에 상반기에는 활동 위주의 반별 모임을 진행했다면, 하반기에는 공과 교재 위주의 반별 모임을 통해 아이들이 직접 읽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다. 어린 시절부터 말씀을 기억하고 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초등1부에서는 매달 노래를 통한 암송(챌트)으로 신앙교육에 힘써 왔다.

10월에는 단체 활동을 하며 학생들과 교사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졌다는 것을 알게 됐다. 처음 어색하며 유치원생처럼 행동했던 아이들 모습을 떠올

릴 때 아이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알 수 있었다고. 11월과 12월은 친구초청 예배와 성탄절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과 친구,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음을 알릴 수 있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어렵니다. 이는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그 마음속에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믿음이 있음을 잊지 말아 주세요. 이 친구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초등1부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 전도사가 전하는 말은 단 하나였다. 초등1부라고 해서 어렵다고, 잘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다음이라 불리는 세대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다음이 아닌 지금을 살아가는 아이들이라는 사실 또한 기억하며 아이들에게 현재를 살아갈 수 있는 사랑을 주길 바란다는 것.

- 1 활동 위주에서 점차 공과 교재로 옮겨가고 있는 초등1부의 반별 모임
- 2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보다 가까워진 초등1부 학생들
- 3 반별 말씀 암송을 통한 신앙교육으로 초등1부 아이들은 한단계 성장한 모습 보여주기

## 일상과 특별함 속에 한 뼘 자란 초등5부

글 전영숙 기자

선선한 가을 날씨가 찾아오며 초등5부는 여름 사역 이후 모처럼 일상 예배를 드리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다. 그럼에도 지난 10월 초등5부 예배에는 특별함이 자리했다. 추수감사 찬양예배와 극장예배가 그것이다. 추수감사 찬양예배는 기존의 예배형식을 찬양예배 형식으로 바꾸고, 중간에 짧지만 아이들의 작은 흥미를 끌어낼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준비하고 진행했다. 평소보다 긴 기도 시간을 통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초청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모처럼 원 없이 몸짓으로, 목소리로, 온 마음으로 기쁘게 울려드린 찬양예배는 모두에게 예배의 활력을 불어넣었다. 10월 29일에 있었던 극장예배는 예배당이 아닌 극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화를 시청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다큐멘터리를 시청했는데 긴 시간 다큐 형식의 영화를 시청하다

보니 집중력이 흐트러질 때도 있었으나 박성훈 전 도사는 가슴 속에 자리 잡은 감동이 오래도록 남아 있다고 전했다.

“굶주림과 추위 속에서 죽어가는 한국전쟁 고아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며 눈물 흘리던 에버렛 스완슨의 ‘컴패션’ 사역과 그 안에서 동일하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소외된 이웃에 대한 관심과 도움의 마음을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12월에는 3일부터 시작된 대림절 기간과 성탄감사예배 가운데 성탄의 의미를 잘 찾고 경험할 수 있도록 참여의 장을 만들어 진행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일상의 모든 사역은 물론 특별히 진행되는 사역들을 통해 초등5부 학생들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아이들로 자라갔다.

- 1 주일 예배를 극장에서 드리고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다큐 영화를 감상한 초등5부
- 2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추수감사 찬양예배 가운데 예배 활력을 찾은 초등5부
- 3 추수감사 찬양예배 때 집에서 직접 가져온 과일로 나누는 기쁨을 누린 초등5부 학생들

## 하반기 제자훈련: '더 셰프'

글 정은숙 기자

“주일은 내가 복음의 요리사!!”  
세상으로 나아가 복음 요리를 먹어보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은 제자들이 나섰다. 나를, 학교를, 가정을 건강하게 만드는 제자훈련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선선한 가을을 맞아 울긋불긋 단풍처럼 다채로운 중등부 제자훈련이 시작되었다.

제자훈련 '더 셰프'는, 일류 셰프가 최고의 재료들을 가지고 최고의 맛을 내는 요리를 만드는 것처럼 복음, 말씀, 기독교의 중요한 교리 등을 잘 배워, 그것들로 최고의 요리를 만들어 세상에 전하고 대접하는 복음의 요리사가 되자!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상반기에는 기본교리를 배우고, 하반기에는 십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과 의미를 깨닫고 결단하며 6주간 훈련하였다. 훈련과정에 맛있는 간식과 풍성한 나눔, 교사들의 사랑과 헌신이 어우러져 학생들은 한 주 한 주 친밀해지고 성숙해져 갔다.

특히 이번 제자훈련에서는 훈련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고자 면접을 통해, 훈련생들의 동기와 기대하는 점 등을 들어 보았다. “예수님을, 말씀을 더 알아가고 싶어요.”, “친구들과 함께 성경을 배우는 것이 즐거워요.”, “훈련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등 81명의 학생들이 각각 제자훈련을 향한 열정과 기대를 말하였다. 학생들의 적극적인 마음과 열정이 이번 '더 셰프' 제자훈련을 더욱 유익하고 풍성하게 만들었다.

중등부 제자훈련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박주성 교사는, “제자훈련을 통해 학생들이 말씀의 능력으로 잘 세워져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 담대히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라고 말했다.

중등부 풋살동아리 바비큐 파티



### 2024년 ASMR이다

2024년 중등부의 연간 주제는 ASMR이다. ASMR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 기울이며, 기도와 예배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바로 서는 중등부가 되자!'는 의미이다.

나로 향한 마음을 주님께로 돌리고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자라가자!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Aim to 목표로 하자! / Secret 나를 향한 주님의 비밀을! / Mind 나의 마음을! / Return 하나님께로 돌리자!). 중등부의 올해 주제와 발맞춰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고 힘써 훈련받으며 세상으로 나아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중등부 학생들의 멋진 모습이 기대된다.



중등부 주일예배 봉헌

## 루미너스 제자훈련

글 정은숙 기자

고등부는 매년 1, 2학기 두 차례에 걸쳐서 루미너스 제자훈련을 진행한다.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구원반', 구약과 신약을 기반으로 하는 '성장반1, 2', 교회생활과 기독교 가치관에 대해 고민하는 '성숙반'으로 커리큘럼이 구성되었다. 특별한 것은 구원의 확신을 고백하는 구원반 교재는 고등부 안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진행된다는 점이다. 2~3명씩 소규모로 반을 구성해서 교사와 학생들의 깊은 나눔이 있을 수 있도록 한다. 좋은 방법이지만 선생님들의 수고와 헌신이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루미너스 제자훈련이 언제나 은혜의 시간이었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제자훈련에 참여한 학생들의 간증 때문이다. 조춘동 집사(부장님)의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었고,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분명한 성장이 있었다.”라는 간증은 고등부가 귀한 제자훈련의 사역에 열정을 낼 수 있는 원동력이다. 루미너스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 성장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의 가치를 배워갈 수 있길 소망한다.



교사와 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루미너스 제자훈련 아웃팅



2023년 2학기 루미너스 제자훈련 수료식

# 청년광장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holylightkwangsungscn

# 청년부 제1회 크리스천 청년 축구 월드컵: We Are One

글 조희성 기자

차가운 날이 다가온 겨울의 입구에서 제1회 크리스천 청년 축구대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를 비롯하여 나눔교회, 서울 동광교회, 화전중앙교회, 더가축서대문교회, 일신감리교회 등, 총 6개 교회 청년들이 참여해 교단과 교파를 초월한 연합의 장을 이루었습니다.

2023년 11월 11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교하체육공원에서 열린 이 대회를 통해 정기적으로 하던 교류전을 넘어, 서로 다른 교단과 교회 출신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마음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3개월 동안 각 교회 청년 대표들이 기획 및 준비하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서로 다른 교회 배경을 가진 청년들이 협력하고 수고했습니다. 또한 선수들도 경기를 통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 선수들의 열정과 팀워크, 스포츠정신은 청년들의 신앙과 스포츠에 대한 열정을 동시에 드러내며, 서로 격려하고 지원하는 모습으로 기독교 정신의 진수를 보여 주었습니다.

대회는 광승현 위임목사님의 청년들을 향한 사랑이 담긴 축사와 기도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광성청년FC는 특이하게도 선수들이 개별 포지션을 맡지 않고 매 경기마다 포메이션을 다르게 하여 첫 경기는 수비수로 출전했다면, 다음 경기에는 골키퍼를 하는 등 포지션을 독식하지 않고 서로 나누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청년부 안에서 서로 신뢰하고 함께한 광성청년FC의 경험은 경기를 통해 기술적인 면과 실력을 유감없이 드러내며 대회에서 3승 2무 골득실 +5로 준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서로를 향한 상호 배려와 스포츠 정신에 힘입어 아무도 다치지 않고 감사히 대회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또한 청년부의 응원과 관심은 경기장을 더욱

☞ 추운 날씨도 우릴 막지 못한다



☞ 준우승 달성



☞ we are one



☞ CTS에서도 취재 왔다



☞ 사랑이 가득 담긴 많은 관심 부탁해요의 줄임말) 봉어빵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축구에 참여하는 청년 선수들의 친구들, 리더들이 함께 공동체로서 참여하여, 봉어빵을 구워 나누며 뜨겁게 응원했습니다. 서로에게 따뜻함을 전하는 모습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공동체의 소중함과 서로에게 봉사하는 마음을 전해주며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무너졌던 공동체의 회복을 나타내는 것 같았습니다.

이번 대회는 지역사회 교회 공동체에 새로운 연합과 소통의 바람을 불어넣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1회 크리스천 청년 축구 월드컵은 청년들이 신앙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더 확장된 역할을 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합하여 다음세대 기독교 청년들에게 공동체의 정신과 영감을 주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축구를 통한 신앙 공동체 형성과 교류의 촉진은 할렐루야 축구단의 정신을 연상시키며, 스포츠를 통한 신앙의 실천과 복음 전파의 전통을 이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축구단은 대한민국 최초의 기독교 축구 클럽으로 스포츠와 신앙의 결합을 통해 기독교 정신을 살아있게 유지하고 전파하는 시조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정신을 이어가며 청년들은 축구에 참여함으로써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넘어 일상적인 활동을 통해서도 복음을 실천할 수 있음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번 경기를 통해 광성청년FC와 청년부는 서로 다양한 배경의 청년들이 하나 된 모습으로 팀워크를 이루며 교류하고 축구를 넘어 인격적인 접근과 신앙을 서로 배워가며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크리스천 청년 축구 월드컵은 단순한 스포츠 경기를 넘어 신앙과 연대, 기독교 공동체 정신의 실천을 보여 주는 한 사례로, 앞으로도 이러한 대회가 계속되어 청년들이 신앙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 자매들도 찬다^^

# 사랑하는 청년부에게

글 최재욱 목사

'아이 하나를 키우기 위해선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의 속담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잘 키워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와 도움이 필요한가,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속담이지요. 3년간의 청년부 사역을 수행하며 새삼스럽게 이 속담이 떠오르는 것은 한 사람의 목사를 목사답게 만들어준 모든 청년 여러분들 덕분일 것입니다.

2020년 11월 28일. 코로나19가 절정이던 시기에 부임한 저와 차선우 목사를 수줍게 환영해주고 마음을 열어 다가와 준 청년들의 마음을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온라인(Zoom)으로 첫 리더모임을 진행하며 가슴 벅차했던 기억, 처음 만날 때부터 마스크를 쓰고 만나다 보니 눈만 보고 누군지를 알아내야 했던 진땀 났던 기억, 현장모임이 가능해지며 둘째 해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함께 갔던 리더십 엠티, 3년 만에 재개한 현장 수련회와 국내-해외 비전트립까지. 지금 생각하니 3년이란 시간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을 만나서 제가 조금은 더 목사다워질 수 있었고,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교회의 소망이,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구 사역자로 새로운 발걸음을 시작하지만,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소식을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에 좋은 신앙의 동역자가 되었기를 소망하고, 감사했고, 사랑합니다.



⊗ 가족사진

#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글 백일주 전도사

고사성어 중에 '장강의 뒷 물결이 앞 물결을 밀어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세대교체를 뜻할 때 자주 사용하는 말이지요. 2019년 12월, 저는 앞 물결을 밀어내고 거룩한빛광성교회 청년부 전도사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처음 경험한 모든 일들은 제게 낯설고 익숙하지 않은 것 투성이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 낯선 공간, 익숙하지 않은 사역들, 그리고 전 세계를 위협한 코로나와 그로 인한 교회의 새로운 국면까지. 그렇게 다사다난했던 4년이라는 시간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4년이라는 시간은 제게 어느 때보다도 값지고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통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었고, 교회의 공간은 몸과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었으며, 청년들과 함께한 모든 사역과 시간들은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행복한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경험은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값진 선물이자, 제게는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모래사장으로 흩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이미 소식을 들은 청년들이 헤어짐의 아쉬움을 말해주고는 합니다. 아마도 '이제야 이 물결에 적응했는데, 벌써 가시느냐?'는 말일 수도 있겠습니다. 새로운 물결은 항상 낯설고, 차갑게

⊗ 청년들과 함께한 기독교 인문학 강의



느껴집니다.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에게 늘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물결은 낯설지만 신선하고, 차갑지만 상쾌합니다. 우리는 익숙함을 벗어나 새로운 존재를, 새로운 환경을, 새로운 경험을 맞이할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우리 광성교회 청년들은 유연하지만 정직하고, 냉철하지만 따뜻하며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는 용기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시작 앞에 주저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새로운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욱 아름답게 빚어갈 것입니다. 저 또한 여러분들을 통해 배운, 아름다운 마음을 잊지 않고 지내겠습니다. 그동안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히 계십시오.



⊗ 올레 제주 비전트립 팀과 함께



⊗ 한 해 수고한, 또 한 해 섬겨주실 임원단과 함께



⊗ 청년 사역자들과 함께



⊗ MT간다잇

# 갈렙실버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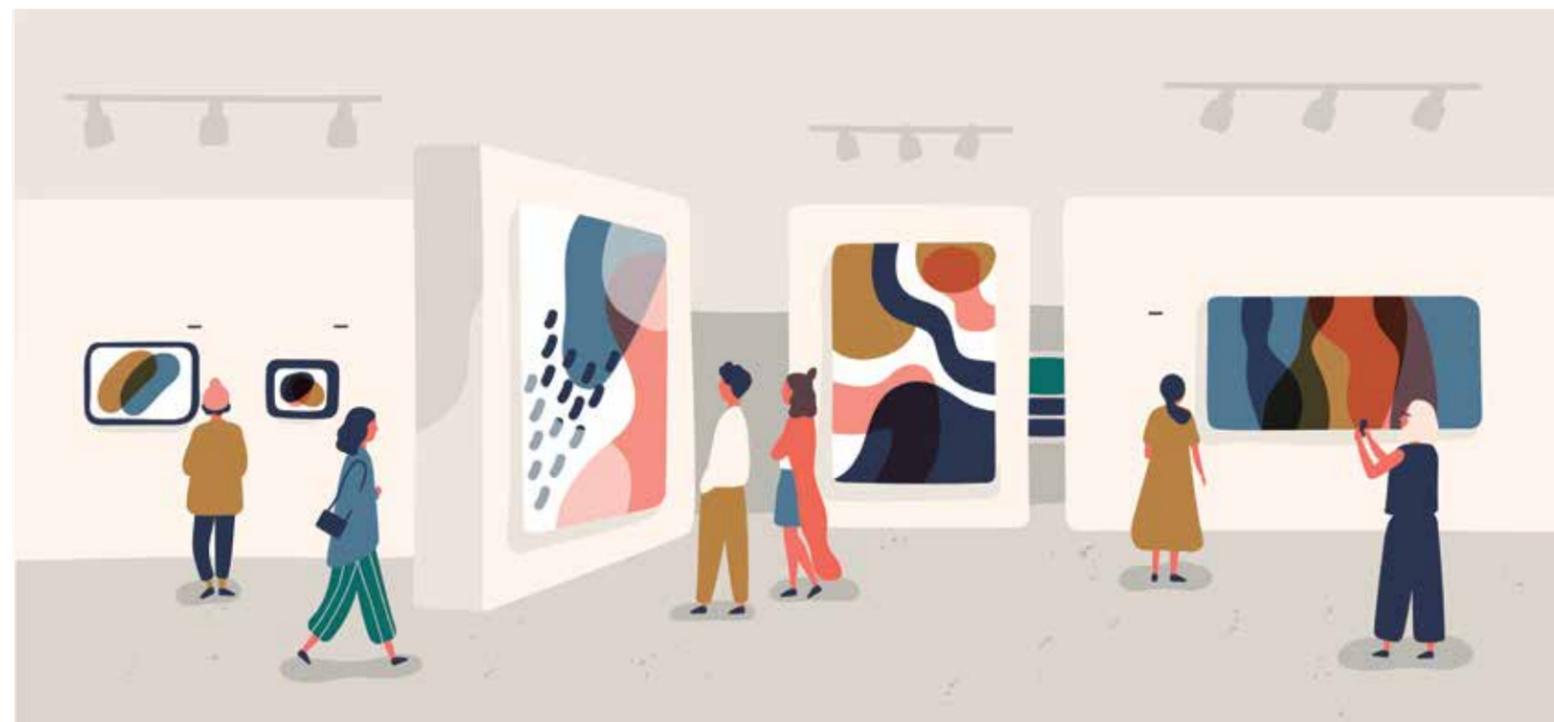
청춘이 별거냐?  
별거 있더냐?  
주님 앞에 나는  
매일 청춘이다.

사진 이용주 기자





# 문화 & 독자 마당





forest oil on canvas 909x727mm 2023년 작

## 새벽 숲 Early morning

### 작가 노트

아침 해가 막 뜨기 전 숲에 가 보면 새들과 곤충, 동물들이 먼저 일어나 이곳저곳을 다니며 노래합니다. 온몸으로 깨어나는 숲에서 곧 마주칠 것으로 보이는 두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때에 따라 삶의 화두를 심상으로 표현해오고 있습니다. 공들여 쓰는 일기를 생각하며 그림 그리곤 합니다. 삶을 노래해서 피는 꽃이 있다면 어땠든 예쁠 것 같습니다.



### 한승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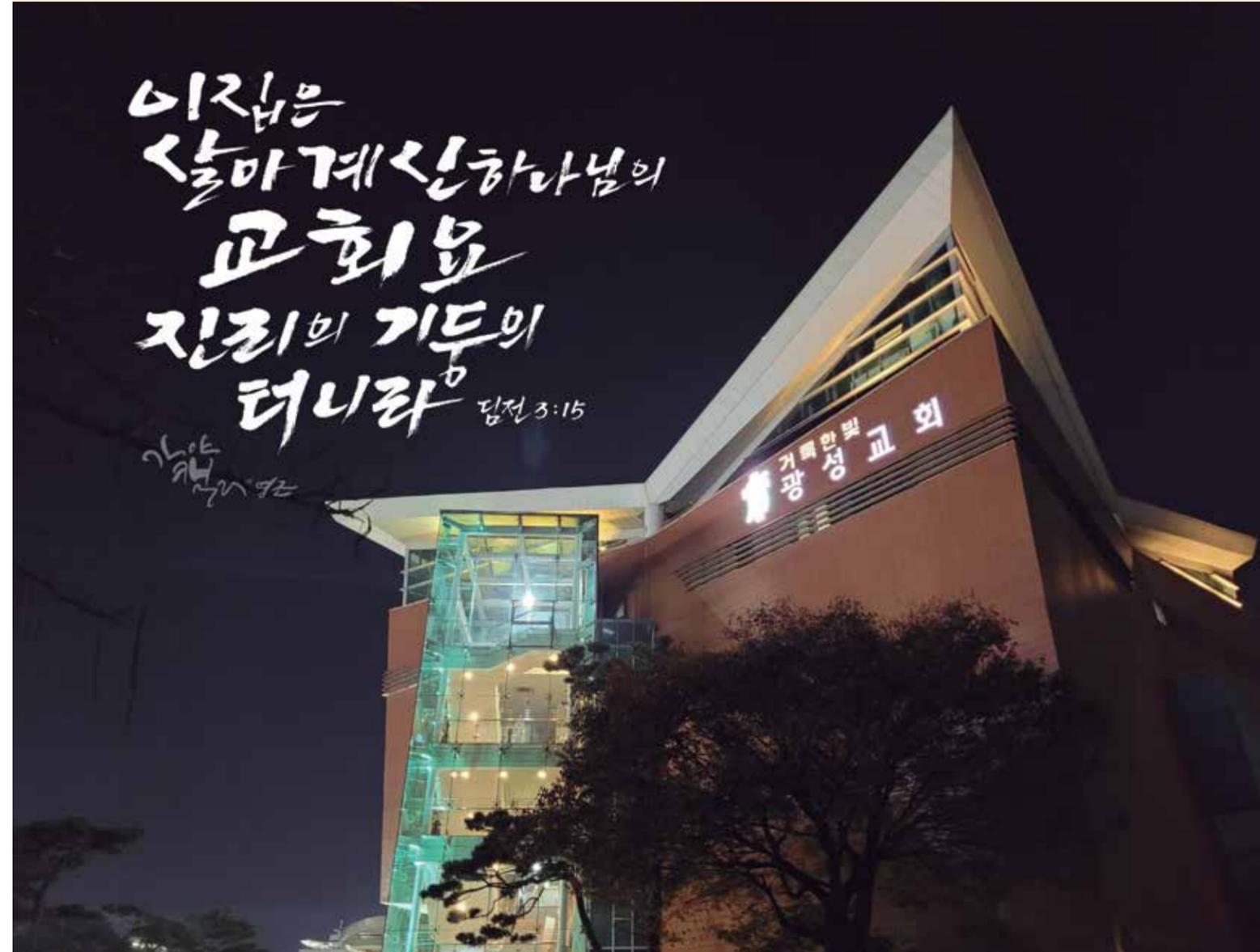
회화를 중심으로 글쓰기, 사진, 영상, 도자 등을 다루며 창작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술 강사로 활동했고 동료 예술가들과 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종종 환경 활동도 하고, 탐조를 즐깁니다. 녹색서울시민위원회 간사로 일하며 창작과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https://blog.naver.com/gkstmdnr93>

인스타그램 @teaseungwook

E-mail gkstmdnr93@naver.com

## 캘리그래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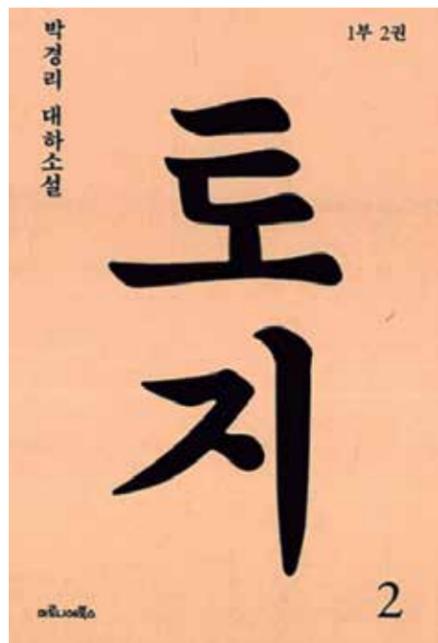


### 작품

김학철(필명: 영근)

# 박경리의 『토지』

글 김은숙 기자(수필가, 필명 김지형)



우리 민족의 굴곡진 근대사를 통해 민초들의 지난(至難)했던 삶을 방대한 서사로 엮어낸 대하소설 박경리의 『토지』는 한국문학뿐 아니라 세계문학사에서도 인정받은 역작이다.

1969년 『현대문학』에 처음 연재를 시작하여 26년 후인 1995년 완간본으로 출간되자 많은 독자와 평론가들의 호평이 이어져 문학사상 또 하나의 금자탑이 되었다.

『토지』의 지리적 무대는 경남 하동군 최 참판 댁을 중심으로 평사리 마을 아래 펼쳐진 약양 들판의 넓은 평야에서 간도의 용정, 일본, 동아시아에까지 이르며, 시대적으로는 1890년 조선 말기에서 1945년 해방되기까지 약 반세기에 걸친 민중의 삶과 한민족의 역사이다.

등장인물은 격변하는 시대를 헤쳐왔던 각계각층의 백성 즉 양반, 무녀, 상인, 백정, 노비, 포수, 승려, 기생, 독립운동가 및 밀정 등으로 마을 아낙네들까지 무려 600여 명에 이른다.

그 많은 인물의 삶의 방식, 심리묘사의 탁월함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경지로 치밀하고 사실적이라 한 사람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모두가 주인공으로 여겨진다.

작품의 주무대를 재현해 놓은 지리산 자락의 하동 평사리 최 참판 댁을 찾았을 때, 수많은 작품 속 인물이 생생하게 되살아났다. 마을 언덕을 오르는 고샅길을 걷노라니 어디선가 귀녀의 외마디 웃음소리가 귓가를 맴돌고 우물가에선 임이네, 두만네, 강청댁의 수다가 들려오는 듯하다. 용이와 월선의 애뜻한 사랑, 서희와 길상의 애증이 엇갈리는 불안전한 사랑, 그리고 강 포수의 귀녀에 대한 헌신적인 사랑, 구천(김환)과 별당아씨의 비극적인 사랑이 아프게 떠오르며 그들이 마치 그 시대에 실제로 살아 있던 인물들이었던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

작가가 얼마나 인물 하나하나에 이르기까지 연구에 심혈을 기울였는지 치열한 작가정신이 엿보인다. 역사적으로 배경이 된 굵직한 사건은 먼저 동학농민운동, 을사늑약으로 인한 일제강점기, 청일전쟁, 간도협약, 만주사변 등으로 우리 민족이 비극으로 점철된 가장 어려운 시기이기에 민족의 한과 고난이 극한에 처해있었다. 줄거리를 대략 요약해 보면.

**제1부** 하동 평사리 최 참판 댁 일가와 마을 농민들의 일상, 몰락한 양반 김평산과 귀녀의 음모로 당한 최치수의 죽음, 전염병 호열자의 창궐로 윤씨 부인마저 목숨을 잃고 어린 서희만 홀로 남게 되자 윤씨 부인의 외척 조준구와 그의 부인이 재산을 노려 어린 서희를 괴롭힘, 이에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해 서희 일행과 마을 사람 일부는 고향을 떠나 간도 용정지방으로 이주한다.

**제2부** 1911년부터 용정지방을 배경으로 서희, 길상, 용이, 월선, 임이네 등의 생활,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 독립군을 쫓는 김평산의 아들 김두수의 악행 등 간도에서 전개되는 인물들의 사랑과 배신 그리고 일제에 맞서는 독립군의 항일투쟁의 활동이 그려진다.

**제3부** 최서희가 간도에서 각종 사업으로 상당한 부를 축적하여 마침내 그리던 고향 평사리로 귀향하여 빼앗긴 옛 고택 최 참판 댁을 조준구에게서 다시 사들인다. 시대 배경으로는 1919~29년으로, 광주학생운동까지 서술한다.

**제4부** 1930년~38년까지의 항일 독립운동, 점점 심해지는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 지배의 교활함, 그 속에서 끈끈히 이어지는 민족애, 서희의 두 아들 환국과 윤국, 기화와 상현의 딸 양현과 영광, 오가다 지로와 유인실 등 여러 인물의 갈등이 전개되며 역사의 문학적 형상화가 그려진다.

**제5부** 1940~1945.8.15. 해방되기까지. 길상의 출옥과 관음 탕화 완성, 일본의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자 드디어 일본 천황이 항복, 이 뉴스를 듣자 최서희는 그동안 묶여있던 쇠사슬에서 일제히 풀려나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술회한다.

1897년 추석날을 맞은 평사리 마을에서 “팔월 한가위는 투명하고 삼삼한 한산 세모시 같은 비애는 아닐는지”로 시작된 대하소설 『토지』는 격랑의 물결을 헤쳐온 한민족이 드디어 일제에서 해방된 날로 대미를 완성한다. 그러나 “『토지』는 아직도 미완성이다.”라고 생전에 작가는 말했다고 한다.

≡ 생카대기 중 ππ



# 아빠와의 데이트 in Seoul

글 & 사진 최아인 학생 기자(고1)

처음 맡게 된 여행 기사. 게다가 콘셉트는 '아빠와의 데이트'라니... 고민을 거듭하고 가족들끼리 아이디어 회의도 해보았지만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았다. 그래서 일단 후보에 오른 곳들을 모두 가보게 되었다.

## 첫째 날, 코엑스

나는 체험학습을, 아빠는 황금 같은 연차를 내고 일찍이 코엑스로 향했다. 도착하자마자 코엑스 중심부에 있는 별마당도서관으로 갔다. 천장까지 채워진 책들을 감상하였고 그중에서 이끌리는 제목의 책을 집어 들고 잠깐의 독서 타임을 가졌다. 별마당도서관에서는 매주 강사를 초청하는 행사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오늘이 내가 몇 주 전 읽었던 책, 『오늘 하지 않아도 되는 걱정은 오늘 하지 않습니다』의 저자 데니스 홍 교수님의 강연이 예정되어 있었다. 강연이 7시라 그 전에 아쿠아리움을 관람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코스가 참 묘하다. 방금 점심으로 맛있게 먹은 물고기들아, 미안!

아직 강연까지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오랜만에 캐러멜 팝콘을 먹으면서 영화를 보기로 했다. 대사가 정말 재미있어서 아빠랑 많이 웃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니 어느새 시간이 다 되어서 10분 일찍 강연 장소로 향했는데 사람들이 정말 가득 차 있었다. 자리가 없어 결국 1시간 30분 동안 강

의를 서서 듣게 되었다. 아침부터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식은땀까지 났지만 지금까지 나의 삶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방향성을 찾는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다. 또 이렇게 우연히 내가 좋아하는 작가님을 만나게 된 것도 큰 행운이라고 생각한다.

## 둘째 날, 홍대

오늘은 버스를 타고 홍대를 갔다. 생각보다 빠르게 도착하였는데 첫 번째로 '생카'부터 갔다. 여기서 '생카'란 좋아하는 아이돌, 또는 연예인의 생일이 다가왔을 때 팬들이 카페를 빌려서 주인공 없는 축하 파티를 하는 것이다. 거기서 음료와 쿠키, 또는 마카롱 세트를 구매하면 연예인 사진이나 엽서, 또는 굿즈를 받을 수 있는데 그 선물들을 모으는 재미가 제법 쏠쏠하다. 오픈 시간에 맞춰서 줄 서 있는 팬들처럼 기다리다 보면 카페 안으로 입장할 수 있다. 입장하고 나면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사진으로 가득 꾸며진 모습을 볼 수 있다. 그 공간에 들어오자마자 아빠의 카메라 셔터는 나와 내가 좋아하는 아이돌의 투 샷을 담느라 멈출 줄 몰랐다. 아무래도 남자 아이돌이다 보니 99%가 여성이었고, ISFJ(MBTI 유형 중 하나로, 내성적이고 계획적인 성격이 특징)인 아빠는 매우 어색해하면서도 곳곳이 버텼다. 사전 조사를 통해 카페 위치를 미리 지도에 표시해둔 덕분에 길을 헤매지 않고 다닐 수 있었다. 중간중간에 맛있는 탕후루도 먹고, 여러 구경도 하면서 신나게 돌아다니다 보니 어느새 생카를 7군데나 다닌 사람이 되었다. 음료수와 아이돌 굿즈를 한껏 모은 가방이 마음을 든든하게 하였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에너지를 모두 쓴 나와 아빠는 기절한 채로 집으로 돌아왔다.

오랜만에 서울을 연속 이틀이나 나가 1만 보나 걸을 만큼의 강행군(?)을 하였지만 그 힘든 과정 가운데에서도 힐링이 있었던 것 같아 정말 즐거웠다. 발바닥이 너무 아팠지만 즐거운 시간이었다.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는 것이 한동안 힘들 수도 있겠다 싶다. ππ 고마워요, 아빠. :)



≡ 데니스 홍 박사의 강의를 들으러 온 사람들+아빠와 찰칵!



≡ 별마당에서 독서 중



≡ 행복한 식사 시간~

# 수어

수어통역 장현정 권사(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장)

안녕하세요? 수어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거룩한빛광성교회 수어통역팀이 봉사해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짹짹!

## 예수님



## 주



QR코드를 스캔하면 동영상이 제공됩니다.

## 여호와



## 십자가



# 이런 믿음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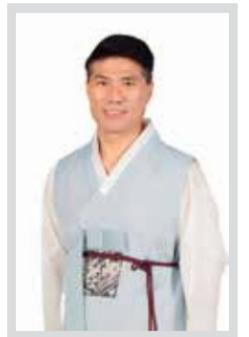
글 김호삼 안수집사

노아의 믿음을 주세요.  
아직 보지 않은 미래를 위해  
방주를 준비하고  
다음세대 구원하는  
믿음을 좇는 자 되게 하소서.

모세의 믿음을 주세요.  
명예를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살며  
거절할 것을 거절하고 선택할 것을 선택하는  
하나님이 알아주는 자 되게 하소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세요.  
주님 부르실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나아가  
즐겁게 희생하며  
내일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하소서.

승리하는 믿음을 주세요.  
다니엘의 믿음이 불을 이겨내고  
다윗의 믿음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엘리아의 믿음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듯  
인내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 전도하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이춘희 성도

목사님께서 '나만 좋고, 나만 구원받고, 나만 행복하면 안 되지 않느냐?' 하시며 총동원 전도 주일을 선포하시고 설교 시간마다 전도에 대해 말씀을 증거해 주셨다. 전국에서 전도왕 상을 받으신 분들이 오셔서 간증하는 집회도 여러 번 열렸는데, 그중 한 분의 간증이 내 마음에 뜨겁게 다가왔다.

한 여자 집사님네 식구는 약을 먹는 사람이 항상 한 명 이상 있을 정도로 집안에 약 봉투가 끊어지는 날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다가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내 기도를 더 잘 들어주실 것이다.'라는 생각에 스스로 전도팀에 들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어느새 약 먹는 가족이 한 명도 없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 하셨다. 나도 작은 쇼핑백으로 가득 약을 받아와 먹던 날이 많았기에 이 간증을 듣고 매우 부러웠다.

나도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으나 전도를 나가려고 하면 꼭 시택에, 친정에 해야 할 일들이 생겨서 차일피일 미루곤 했다. 총동원 주일이 가까워져 오늘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가겠다고 결심한 날엔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오전 11시가 지나도 비가 그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가방에 전도지를 가득 넣고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만나게 해 주세요.' 기도하곤 우산을 쓰고 교회에서 가까운 대단지 아파트로 나가 '기쁜 소식을 전해 드리러 왔습니다.'라고 인사를 했으나 대답 없이 인터폰을 꺼버리는 사람, '필요 없어요.' 소리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금 주님을 전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런 냉대를 받아도 기뻐했다.

그곳은 복도식 아파트였는데 어느 집에서 한 남자가 복도 쪽 창문을 열고 창틀 사이로 내 얼굴을 보면서 '지금 아내가 직장에 나가고 제가 혼자 있어서 문을 열어드리기가 곤란하네요. 전도하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말에는 아내가 있으니까 주말에 꼭 다시 와 주십시오.' 하고 친절하게 얘기해줘서 정말 고맙고 힘이 났다.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음 집 인터폰을 누르고 인사를 했더니 젊은 여자가 현관문을 열고 열은 미소를 띠며 들어오라고 했다. 집안에 들어가서 잠깐 기도를 드렸다. 여주인은 내게 차 한 잔 대접까지 하더니 왈칵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결혼 전 성가대와 교회 학교 교사도 하면서 열심히던 신앙생활을 무신론자 남편과 만난 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냈다고 했다. 결혼 3년 만에 어렵게 얻은 딸이 지금 3살인데 희소병에 걸려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란다. 눈물로 지내며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고된 과정에 예수님이 생각났는데 그 은혜가 너무나 그리워서 자신의 믿음 없음을 후회하면서 남편에게 사정했다고 했다.

'나 사실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어. 당신을 사랑해서 그냥 잊고 지냈는데, 예수님은 우리 딸의 병을 고쳐주실 것만 같아. 우리 같이 교회에 다니자!'

남편의 동의까지 얻고 그녀는 어젯밤 '하나님께서 좋은 교회로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를 드리고 잤는데 때마침 나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고 해서 우리는 서로 부둥켜안고 울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그녀의 가족을 교회로 인도하게 되었고, 그녀는 나를 예수님이 만나게 해준 천사라도 되는 것처럼 사랑해 주었다.

영양학을 전공한 영양사로 글 쓰는 재주가 부족한 내가 이렇게 간증도 쓸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에게 건강도 주셔서 이쁜 두 외손주를 매일 육아하며 지내는 지금의 삶이 더없이 행복하다.

오늘도 광승현 위임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지을 수가 있으며, 세상에 나가서 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한다.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설교 말씀을 같이 듣고 싶다는 소망을 가져본다.



»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무럭무럭 성장하는 손주들

## 사단법인 랩비직업학교를 준비하며

글 손민준 목사

한 조사에 의하면 200만 원 이상의 금액을 사례로 받는 목사는 전체 목사의 29%이며, 나머지 71%는 200만 원도 못 받는다고 한다. 개척 교회 담임목사는 최저 임금 수준도 되지 않는 급여를 받거나 그마저도 받지 못하고 있다. 목회자가 돈 걱정 없이 목회할 수 없다면 자비량 목사가 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쩔 수 없이 세상 직장으로 내몰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건실한 목회를 위해 자비량 목회를 준비하는 것이 건강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닐까?

정성진 목사님은 '일하시는 예수'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예수님도 공생애 전까지 생계를 위해 성실히 일하셨을 것이라며 목사의 노동은 신학적이며 성경적이라고 언급하셨다. 또한 1호 선교사이자 목사인 바울 역시 천막을 만드는 텐트메이커(Tent Maker)였다고도 덧붙이셨다. 게다가 목회자가 일터에 나감으로써 성도들이 일터에서 겪는 고난과 애환에 공감할 수 있게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일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목회자의 이중직은 시대적 요구이자 예수님과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사역한다는 점에서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 발기인 모임.  
정성진 목사, 조성돈 교수, 손민준 목사



◀ 이론수업 후 실기연습

◁ 에어컨 설치 강의



'랩비직업학교'는 자비량 목회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전문 직업인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여러 직업군의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해 주는 사역을 담당하고자 한다. 사단법인 랩비직업학교의 이사장은 정성진 목사님, 대표는 조성돈 목사님이며, 사무총장은 손민준 목사님이다. 그리고 고문은 김동호 목사님께서 맡아주시기로 했다. 현재 용접, 에어컨 설치 및 청소, 목공, 전기공사, 데이터라벨러, 인문학 강사, 전자출판, 바리스타, 제과제빵 등 다양한 직업군의 훈련 과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목회자들이 교회뿐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전문인으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용접 기술 실기 시범



### 크로스로드 후원

####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003-753130

#### 예금주

사단법인 크로스로드

#### 크로스로드 사무실

031-901-0316

- 사단법인 랩비직업학교 사무총장 손민준 목사 -  
랩비직업학교 홈페이지 주소 <https://rabbijob.org>

##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어 행복하고 선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편집부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겨자씨』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 나가는 복음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아름답게 담길 수 있도록 함께 동행해 주세요.

1. 가장 좋았던 점은 무엇입니까?

2. 아쉬웠던 점은 무엇입니까?

3. 다음호의 『겨자씨』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위의 내용을 작성하신 후 휴대폰 카메라로 찍어 아래의 『겨자씨』 담당자에게 전송해 주시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소중한 원고를 기다립니다.

### 원고 종류

시, 수필, 기행문, 사진, 그림, 서예, 만화, 신앙 간증, 사역 소개 등

### 주제

자유롭게

### 원고 분량

A4 용지 1장 이내, 10point

### 원고 마감

수시로

보내주신 글이 『겨자씨』에 소개되면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 겨자씨.

## 2024 WINTER VOL.49

### 보내실 곳

411-80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거룩한빛광성교회 『겨자씨』 담당자 앞  
jye3315@naver.com  
010-2579-4687

등록일: 2010년 1월 13일 통권 49호  
등록번호: 고양, 라00082  
발행인: 광승현  
발행일: 2024년 1월 1일  
인쇄: 천광인쇄  
주소: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경의로 956  
전화: 031-929-3347  
중고등부 취재기자: 최아인, 태경환, 최예준  
청년부 취재기자: 조희성  
장년부 취재기자: 김용기, 김은숙, 강혜미, 전영숙, 김형수, 정은숙, 우주희  
사진기자: 이용주  
편집: 김형수, 이승애  
책임편집: 조희경  
표지 및 본문 디자인: 조혜리, 장예지  
편집장: 전영의



소통과 섬김이 있는 삶

# 메주꽃 요양원

- ☑ 숲으로 둘러싸인 쾌적한 생활 공간
- ☑ 실·내외 CCTV, 자동 대문, 자동개폐출입문, 넓은 주차장
- ☑ 소수 인원으로 가정 같은 아늑한 분위기
- ☑ 요양시설 전문 영양사의 균형 잡힌 식단
- ☑ 요양기관전문 협력병원 지정으로 촘촘한 의료서비스 구축
- ☑ 자유로 서울-문산고속도로 내포 IC 2분 거리
- ☑ 가정방문간호사, 상주 간호 요원 배치
- ☑ 계약 의사 방문 진료(2, 4주 수요일)

## 프로그램



### 치매 프로그램

노래교실  
미술교실  
이야기교실

### 여가 프로그램

놀이교실  
실버체조  
음악감상

### 인지 프로그램

학습지 활동  
그림 그리기  
색칠하기

블로그 [https://blog.naver.com/meju\\_nursinghome](https://blog.naver.com/meju_nursinghome)

주소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문현말길 142

전화 031)953-9935, 010-9794-9879

# 일산농협

##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2023년 7월 준공완료!

농산물 유통 혁신의 기반을 다지고 농가 소득 증대를 획기적으로 도모하여  
농업인과 소비자 모두가 행복한 일산농협을 만들겠습니다.

### 로컬푸드판매거점센터 개요 (2023.07.31 준공)

부지면적 2,922평 / 건축연면적 1,464평 / 위치: 일산동구 장항로 274



### ① 로컬푸드직매장 지속 확장 추진

2024년 3월경 판매거점센터 내 5호점 자유로점 개점 예정

KIM'S CLUB & 일산농협 로컬푸드

**KIM'S LOCAL FOOD**

### ② 농산물 집하 및 대형 유통마트 납품 사업

이랜드 김스로컬푸드 등 대형 납품처 지속 확장



### ③ 자체 브랜드·온라인 쇼핑몰 일산팜

(상표권 등록 완료 '상표등록 제40-1815891호')

농산물 소비 트렌드 반영과 꾸러미 사업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운영

### & 지역사회 연계사업(푸드플랜), GAP·친환경 농산물 사업 추진



- 본 점 031)975-8061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일청로 30)
- 풍산지점 031)906-3234 ■ 산들지점 031)977-6540 ■ 마두역지점 031)903-6251 ■ 자유로지점 031)906-8161 ■ 양지지점 031)922-4381 ■ 강촌지점 031)932-8061
- 정발산역지점 031)908-8061 ■ 백석역지점 031)904-8061 ■ 탄현지점 031)912-8061 ■ 풍동지점 031)907-8071 ■ 탄현복지점 031)916-8061 ■ 풍산역지점 031)977-8062
- 킨텍스역지점 031)918-8061 ■ 영농지원센터 031)907-0252 ■ 농기계서비스종합지원센터 031)904-0253 ■ 쌀 판매장 1599-8061 ■ 로컬푸드 풍산점 031)906-3666
- 로컬푸드일산점 031)975-8322 ■ 로컬푸드장항점 031)907-8161 ■ 로컬푸드킨텍스역점 031)918-8161 ■ 로컬푸드:APC추진사업소 031)907-8161 ■ 농산물산지유통센터 031)975-8701